

생명샘

Living Stream vol. II



전화령

CEMF

차례

1. 선교목상/5
2. 의의 본, 아브라함/7
3. 생명나무의 실체/9
4. 하나님이 가라사대/12
5.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14
6. 요시야의 개혁/16
7. 히스기야의 기도 향연/18
8. 요시야 시대의 부흥이 그림다/21
9. 하나님의 역사방법/23
10.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25
11. 느브갓네살의 교만/27
12. 다니엘의 하나님 나라 예언/29
13. 당신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 위에 세우라/32
14. 이해할 수 없는 바울/34
15. 소망의 하나님/36
16.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38
17. 30년 미주 목회 회고/41
18.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안/43
19. 보편교회/45
20. 영광스러운 교회/47
21. 구원의 영광/49
22. 이상 골짜기/52
23. 옛사람과 새사람/54
24. 선교 지망생/56
25. 야곱과 요셉의 소망/59
26. 선교는 전쟁이다/61
27. 그리스도를 아는 일/63
28. 나아만의 감사/65

- 29. 한 장로의 본/68
- 30. 그의 기름부으심/70
- 31. 성령의 인치심/72
- 32. 영혼의 진동/74
- 33.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선교/76
- 34. 아하스의 죄를 경계하자/78
- 35. 기도신앙/80
- 36. 교육의 영이신 성령/82
- 37. 허무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84
- 38. 빛이신 예수/86
- 39. 내 말은 영이요/88
- 40. 영생의 샘물/90
- 41. 절대예수 신앙/92
- 42. 캄보디아 선교 (1)/94
- 43. 캄보디아 선교 (2)/97
- 44. 캄보디아 선교 (3)/100
- 45. 캄보디아 선교 (4)/103
- 46. 캄보디아 선교 (5)/106
- 47. 종의 만족/109
- 48. 신자의 책임감/112
- 49. 히스기야의 경건/115
- 50. 신령한 싸움/117
- 51. 장막절의 완성이신 그리스도/119
- 52. 복음의 즐거움/121
- 53. 솟아나는 샘물/123
- 54. 아침의 묵상/125
- 55. 예수님은 누구신가?/128

1. 선교 목상

우리는 주님 지상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자주 살펴야한다. 마 28:19-20 절은 주님이 남기신 유언으로서 그의 사역의 집합체적 교훈이며 명령이다. 이것이 분명히 교회에 맡긴 대 위임령이라면 교회 지체인 우리는 스스로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응답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당연하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병든 사람이며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부르심의 목적이 천당가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선교 사명의 도구로 부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는 약속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난 성도가 이 땅 위에 살도록 허락 받은 것은 천당, 지옥을 결정하는데 신경 쓰며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모든 신자는 선교의 도구로 부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야하고 교회의 나가는 방향은 선교에 심혈을 쏟는 것이어야 한다. 한 길이지 여러 길 중 한 길이 아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이 지상명령을 위한 것이라면 선교는 그 성질이며 본질이다.

선교란 단순한 전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 제자 삼는 일은 적어도 전도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그 공동체 일원의 교회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화 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디까지나 선교하는 성격으로 나타나고 선교하도록 되어있고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정상적 건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나라들 중 국민의 90%이상이나 불교를 따르는 불교국이다. 자국민 300 만이나 죽인 비극은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해골들이 골동품처럼 유리 상장에 들어있고 독사나 전갈에 물려 죽이는 그림들이나 수천의 사람들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교실마다 즐비하게 걸려있는 곳은 마치 벽재화장터를 방불케 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 나라 수도, 프놈펜에 개혁신학교가 세워져 금년 10 월부터 첫 학기가 시작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 나라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대의 신학생들을 훈련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려는 프로젝트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교회도 작은 한 부분에 동참하여 기도와 가르침에 힘쓰는 것은 주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다. 이 교육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자.

2. 의의 본, 아브라함

우리는 곧 잘 삶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다보면 아브라함도 별 수 없는 인간임을 배운다. 우리처럼 한결같이 약하고 거짓되고 악한 부패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런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 복 받은 사람이니 하는 것은 피상적 관찰인 셈이다. 물론 우리 주님이나 사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나무처럼 높이려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흐름을 자세히 따르다 보면 그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예가 바로 왕과 아비멜렉 앞에서 두 번씩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속인 일이다. 이처럼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사람인가?

심지어 둘째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약속을 받은 은혜를 체험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무사히 넘겼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결코 그의 장점이나 선행에 있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배운다. 그래서 창 15:6 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롬 4:9 참조)라고 했다. 이 말은 구약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지 자기 선행과 순종으로 하나님 의의 표준에 이를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누구나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공로로만 의롭게 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참 믿음을 배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롬 1:16-17) 이것을 칭의(justification)라고 한다.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믿게 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믿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 주신 것이다. 구약의 라합이나 신약의 삭개이나 수가성 여인의 의인됨도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된 것뿐이다. 이 신분의 변화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이 칭의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게 한다. 이 의로 말미암아 실질적 의인으로 살도록 조금 조금씩 이끌어 가심을 성화(sanctification)라고 한다. 우리 속에 의의 씨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닮은 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 의를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의 기초로 하여 의로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목상함으로 값없는 의를 생활에 누리자. 그리스도인 속에 의가 잘 성장하여 아름다운 의를 가져오도록 날마다 주께 나가자.

3. 생명나무의 실체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상징주의 (Symbolism)이다. 실체는 없이 그 의미만을 가르치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실재하면서도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에덴의 교제 장소에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원리를 보인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이다.

이 생명 원리가 에덴 동산에 보인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그들 존재의 근본이며 생명이며 원리이며 원천임을 보인 것이다. 그들 삶의 전 영역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이심을 보인 셈이다. 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음으로 그 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길이며 하나님으로만 즐기는 삶이 행복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이 생명 원리는 구속 역사 속에서 뚜렷이 보여진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나의 만날 큰 도움이라고 노래하였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은 먼저 하나님만이 복임을 알지 못할 때는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천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적 복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제쳐두고 한 말이 아니다. 그를 제외한 행복은 저주요, 그를 제쳐 둔 안녕과 번성은 지옥

평안이고 극심한 심판을 자처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명기 복은 “오직 여호와와 말씀 그대 순종하는 자에게”라는 조건 하에 주어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만이 생명이며 하나님만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리고 영원한 세상의 생명이심을 보이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의 열매를 잃어버렸다. 그 일로 그의 후손 위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죽음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원리는 다시 살아난다.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 이 생명나무의 실재로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생명이며 생명나무이시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소위, 자계시(self-disclosure revelation)에서 뚜렷이 보인다. 그가 참 포도나무요, 선한 목자요, 생명수요,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심은 바로 생명 원리의 실체가 자신임을 주장함이다.

정말 그를 믿는 자는 아담이 먹지 못한 생명의 실체를 접하는 영광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신분 변화이다. 에덴에서의 생명나무의 실재를 체험한 자가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쟁이들은 이 생명의 맛을 알고 이 생명의 원리를 잘 아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 생명의 원리는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세상에서도 너무나 뚜렷이 나타난다. 어린양 보좌 중심에서 만국에 흘러나는 생명강수는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보이는 계시의 분명한 그림이다. 이

영생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는 원리를 중심한 삶을 감사하며 온 세상에 힘써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즐거워 한다.

4.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 하라”할 때 “...하게 되었다”.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으로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히 11:3)

동서양을 막론하고 창조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사상들이 많다.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유출설을 주장한다. 유출설이란 이 세상있기 전, 만물의 원인, 태원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 태원에서 잡다(만물)가 나왔다고 한다. 플라톤도 만물 전에 있던 이데아(Idea)에서 만물이 나왔다 한다. 이데아니 태원이니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세계를 모르는 어둠에서 온 생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색으로 이 세계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물의 근본을 아는 것은 오직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설명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고민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인 성경을 믿기에 그 속에 보인 만물 창조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음을 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그 말씀은 무엇이 아닌,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인격적 신을 예상케 한다. 우리는 요한복음 1:1 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 이 창조자임을 본다. 그 분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만물이 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분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마음에 있는 사상을 말로 전달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말씀을 중심에 둘 때 질서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며, 밝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창조의 왕관인 인간은 그 말씀으로 인해 살도록 되어있다. 이 말씀을 떠난 인생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지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 에덴의 복을 누리는 세계를 알게 된다. ”가라사대“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듯이 가라사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말씀을 인간 언어로 기록한 성경(written words)을 주어 말씀으로 거듭난(벧전 1:23) 그리스도의 사람을 아름답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고백은 바로 이 복을 값없이 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것이 내 가슴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요 4:14)

우리는 가라사대를 많이 사용함으로 우리 구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조금 조금 알게 된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이 어둠을 헤치고 새 역사를 이룬 창조적 도구였음을 알게 된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라.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에 드리운 흑암의 장막을 벗겨주시듯이 흑암은 물러가고 현재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정녕 주의 말씀이 현재의 나의 빛이요 나의 등불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5.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님

성경은 구속의 책이다. 그래서 역사, 문학, 고고학, 과학을 알고 연구하면 그 진의를 보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연구는 할 수 있으나 성경이 목표로 하는 바는 구속(redemption)임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려 하셨는가에 주안점을 둔 특별계시인 생명책이기 때문이다.

첫 장을 열면, 첫 번 대하는 구속의 흐름을 창세기 1:2 절에서 만난다. “여호와와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한다. 우리는 운행했다는 말을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 안의 물 위를 왔다 갔다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한다. 여기 운행했다(hovering)는 “메리헤펠(히브리어)”이란 말은 암탉이 따뜻한 부화 온도에 맞추어 계란을 품고 부화시키듯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 맞는 뜨거운 애정과 능력으로 감싸고 있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두운 곳, 무질서 한 곳을 붙들고 계셨음을 뜻한다. 마치 흑암에 있는 우리 영혼을 사랑으로 붙들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말이다.(엡 2:1-2) 이것은 창조 전의 존재한 무궁세계를 생각하게 한다. 창조의 알파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요한복음 1:1 에서 가리키는 대로 태초 곧 영원 전에 계셨다. 그만이 존재하는 분이셨다. 바로 그 분이 이 어두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심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가득 찬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첫 창조 때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둘째 창조인 그리스도의 구속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적용은 벌써 구속의 역사를 예상하는 적용이다. 모세가 영감에 사로잡혀 기록할 때의 창조 기사는 뜻 없이 나열한 것이 아니다. 바로 구속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 구속의 내용, 구속의 모형은 바로 성령의 영광(The Glory of Spirit)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영광의 모습을 이루심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만물과 인간의 형상 속에서 그 모습을 발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섭리의 목표이고 구속의 목적이란 말이다.

은밀한 가운데 무한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성령은 혼란한 이 세상도 조용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구원에서도 은밀하게 일하신다. 내 마음, 내 가정, 내 직장에서도 사랑으로 왕래하시는 그를 환영하며 성경 위에 서 있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따라 나가자.

6. 요시아의 개혁

16 세기 말엽내지 17 세기 초엽 영국 퓨리탄들은 개혁을 “갱신(renewal)”, “부흥(revival)”이란 말로 사용했다. 이것은 교회의 개혁이란 세상적 용어가 아니라 성경적 용어임을 보인다. 개혁은 주님이 요구하는 것임을 알아 성경에서 그 샘플을 찾아야한다. 요시아 왕의 개혁(대하 34:-35:)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의 모습을 본다. 어떤 요소가 발견되는가?

첫째 요시아 개혁은 성경으로 시작되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이 율법을 읽고 들음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접촉하는 데서 개혁이 시작되었다. 말씀으로 시작한 개혁이란 말이다. 이 말은 그 개혁의 시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다. 내가 개혁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혁하는 도구로서 나를 쓰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의 첫걸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흥, 개혁을 구하는 자는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라. 거기에 개혁의 주체자이신 성령이 불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둘째, 요시아 개혁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에서 진행되었다. 말씀을 듣기만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겼다. 그동안 전 이스라엘을 뒤 덮은 우상들, 심지어 성전을 가득 채운 아세라상, 바알 상을 모두 끌어내 불태워버렸다. 용기있게 행동화한 것이다. 간혹 우리는 주변 우상만을 바라보기 쉽다. 그러나 우리 속에 놓인

우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물량주의, 기복주의, 안일주의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다. 불태워 버리고 버려야 할 우상이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셋째로 개혁의 결과는 더 중요하였다. 요시야가 그렇게 위대한 개혁을 이 루었지만 므낫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를 막을 수가 없었다. 도리어 그는 므깃도에서 애굽 왕과의 싸움에서 전사한다. 개혁을 이룬 왕이요 성령의 쓰임 받은 왕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여기서 개혁의 시작이 하나님이며 개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이심을 알고 겸손히 주권의 손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이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흥이 되고 개혁이 되었다하여 그 뒤에 자기의 탐욕, 자기 이름, 자기 안일을 숨겨놓았다면 성경적 개혁은 아니다. 루터의 개혁도 귀하였지만 칼빈의 개혁은 더 귀하다고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 그가 개혁의 시작과 결과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렸다는 데 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개혁, 말씀화로 삶의 현장에 옮기는 용단,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는 자아부인의 길을 걷는 개혁을 우리는 구한다. 이런 진정한 개혁, 부흥, 갱신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정말 갈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7. 히스기야의 기도 향연

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처럼 진퇴양난에 가로 놓일 수 있다. 믿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다 잘되어 가고 고난과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말은 정말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 그렇게 능력 많은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고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언제나 따랐다. 성령의 능력 받은 사도들, 초대교회의 불덩어리 같은 그들의 현장에는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이 더 많았다. 신자들의 이러한 말은 자칫 잘못하면 거짓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해야한다. 구약의 경건의 사람, 승리의 사람, 지혜의 사람인 히스기야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앗수르의 18 만 5 천 군사를 죽이는 대승리를 이룬 직후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이다.

“네가 병들어 죽으니 네 집을 처치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최후통첩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누가 하나님의 작정을 회피하겠는가? 그런데 이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이란 통로를 지나가게 하신다. 히스기야의 개인에게는 신앙의 연단을,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승리를 주시려는 뜻이 계셨고 또한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전능자) 이심을 만 천하에 증거하는 기회였다. 그런데 고난에는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가슴을 도려내는 각고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열왕기하 20 장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했나를 살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뜻을 드러내셨으며 그 축복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나를 배운다.

첫째, 그는 은밀한 기도를 드렸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상대로 기도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다.(마 6:6)

둘째, 그는 자신의 진실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의 평생 헌신이 기도 응답의 공로는 아니지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동기가 된 것이 확실하다. 사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 믿음의 태도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생긴 것이다.

셋째, 그는 통곡했다, 그만큼 진실했다. 하나님은 진실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기 목숨 하나 구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걱정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구원하심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생명을 15 년이나 연장받았고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태양이 15 도나 물러가는 증거를 볼 수 있었다.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때야말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 돕는 은혜를 받는 기회임을 알고 무릎을 꿇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자. 그만을 상대하여

나아가자. 기도의 향연이 내 속에서 보좌를 향하여 계속 솟아오르게
하자.

8. 요시야 시대 부흥이 그림다

전도사 시절,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경기도 양평의 갈운리의 한 기도원에 수양회 간 일이 있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때라, 가기 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방과 후 매일 교회에 모여 40 일간 기도를 하게 했다. 정한 날, 버스 두 대에 나누어 콩나물 싹듯이 싹고 갔는데 그 날 밤부터 우리는 이상한 영적 분위기에 사로잡혔다. 잠잘 줄 모르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골짜기를 메웠다. 집회 둘째 날 예배를 마치고 나자 학생들은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나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면서도 반신반의 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은 회개와 통회자복으로 이어져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교회는 온통 기도의 불이 타올랐다.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학생들 중 목사가 된 사람도 있다. 지금도 나는 그 사건을 내 마음에 도장을 새기듯이 간직하고 있다. 정말 이런 것이라면 자꾸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때 내가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강의식으로 설교한 일밖에 없었다. 그때 내가 배운 것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다.

요시야 개혁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다. 어지러운 시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성전 수리부터 시작했다. 거기서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한다. 한 제사장이 그것을 읽을 때 요시야는 현재의 저주가 죄 때문인 줄을 알고 자신이 먼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 책을 듣게 하고 무너진 언약을 다시 체결시켰다. 그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다. 말씀의 부흥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판가름된다. 말씀을 읽었는데도 열린 심령을 가지고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이 사모심이 오늘날 요구된다.

너무 값싼 분위기 조성의 부흥, 의지와 지성에까지 전달되지 않는 피상적 개혁운동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또 다른 외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부흥”이라는 복음송 가사 대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보아야한다. “열린 예배”라는 불이 교회마다 일어난다. 세대의 격차를 줄이면서 복음을 알리자는 것이다. 21 세기 모호한 문화 흐름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 대안이다. 그러나 진정 요시야의 부흥 요소가 거기 있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분위기나 감정에 치우친 피상적 부흥은 어디나 있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시야의 열린 마음이다.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책임진 자세가 요구된다. 이런 부흥, 이런 개혁이 오늘날 일어나야 한다. 내가 먼저이지 분위기가 먼저가 아니다. 장소나 방법이 어떻든, 흠바닥이든, 얼어붙은 김치를 먹든, 새우잠을 자는 방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열리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을 피하는 교묘한 수법에 우리 육(부패한 인간성)은 아주 속달되어있다. 있는 거기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속에서부터 이 부흥을 맛보자. 뜬 구름 잡는 부흥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9. 하나님의 역사 방법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때로는 비상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길을 밝히 나타내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일목요연한 방법이 성경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엘리사 사역 속에 일관성 있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방법은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다. (God accomplishes His own will by a man who fears God.) 한 선지 생도의 죽음으로 과부된 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다. 대들보가 무너지면 온 집이 위험한 것처럼 그녀와 그 아들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다. 급기야 빛을 갚기 위해 채주에게 종으로 끌려갈 지경이 되었다. 얼마나 절박한 장면인가? 그 때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아와 그 답답한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비상수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 받는다. 그 선지생도의 여호와 경외를 통해 여호와 경외를 배운 그 여인이 하나님께 찾아 나와 간구하였을 때 주님은 일하신 것이다. 여인의 간구는 그 남편의 경건이 미친 영향의 열매이다. 경건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이다.

다음, 주님의 역사는 헌신된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으로 일하신다는 것이다. (God works His own will by what you offer to

Him even though it is a few)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찾았다. 기름 한 병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으로 일하셨다. 오병이어로 5 천 명이상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 역시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일하셨다. 적은 능력을 가지더라도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지금도 적용된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께 들려질 때 주님은 그 바쳐진 것으로 일하심을 잊지 말고 자기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주님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 (God works His own will by faith) 엘리사는 필요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한다. 기름 한 병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여기에 얼마든지 변명, 불평,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주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중대한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 작은 것 가지고도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신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였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런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순간 순간 일어난다. 우리는 이 역사의 방법을 알고 그것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0.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엘리사의 소원이 교회의 소원이어야 한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그의 간구는 이 시대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사(the gift of Holy Spirit for ministry)”를 가리킨다. 신약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이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는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 역사하는 밝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수치적 갑절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 능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왜 내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다른 성령이 더 와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다. 이미 오신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도구로 드릴 때, 이런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분명히 받은 엘리사의 사역은 혁혁한 역사와 아울러 효과있는 열매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본다. 어떻게 이 능력을 받았는가?

자기 사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가 그의 동기였기 때문이다. 허영이나 교만의 동기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걱정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생도들 중에서도 엘리사만이 이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나의 간구의 동기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나의 왕국인가? 주님의 불꽃같은 눈에 검증을 받아야한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주님은 이것을 주신다.

다음, 하나님은 당장 주시지 않으셨다. 네 번에 걸쳐 옮기는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랐다. 이런 인내와 노력과 수고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노력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신다. 우리는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주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내게 성령충만을 달라고 요청해야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18 에는 성령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 주께 부르짖자.

그는 그 능력 받았음을 점검하였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엘리야 옷으로 전과 같이 내리쳤고 물이 갈라졌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로막는 문제의 물결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리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갑절의 영감이 아니라 일곱 배의 영감이 준비 되었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한다는 갈구는 이미 약속된 은혜를 소원하는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실 준비가 되어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진실의 그릇 위에 이 능력을 구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은혜를 적용하자. 영광스러운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11. 느브갓네살의 교만

교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이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이다. 교만은 아담의 죄며 인류의 죄며 세상 마지막 심판 요인이 되는 죄악이다.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 (Augustine) 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첫째 덕이 겸손이며 둘째 덕도 겸손이고 셋째 덕도 겸손이라고 한 말은 진리이다.

무엇이 교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못한 자는 저절로 교만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어느 하나도 내 힘으로 되었다고 말할 것이란 하나도 없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서 움직이는 건강, 오늘이란 시간은 모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 그리고 보면 어느 하나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은혜 의식이 없을 때 인생은 교만해진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열매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인생은 망한다. 느브갓네살 왕은 120 도나 되는 큰 영역을 다스리는 바벨론 군주였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나라의 부강이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착각하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자화자찬

하자마자 하나님은 즉각 그를 낮추셨다. 그렇게 영특한 군주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뺏을 때 그는 들짐승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아도 아무렇지 않은 들나귀처럼 되어버렸다. 그 후 하나님이 주셔서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국권이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해와 시인은 매우 중요하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치 않을 때 일어나는 죄악이다. 바른 교훈에 착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갖는다. 그 세계를 본 자가 어찌 교만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죄악이 싫어지고 오만한 자리가 위태로운 자리임을 알아 그 자리를 피하기 때문이다.

불황의 때야말로 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무한한 은혜를 감사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 다니엘의 하나님 나라의 예언

느브갓네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이러하였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단 3:44)

이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구약 시대지만 분명한 말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함을 말해준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이다. ‘손으로 하지 않은 뜀 돌’, ‘산에서 나온 돌’이라 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친히 세우시는 나라를 가리킨다. 둘째, 영원한 나라이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 나라는 계시록의 무궁 세계로 완성되는 나라이다. 셋째, 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는 나라이다. 이것은 그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보인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철장을 휘두르는 권세로 그 나라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대적하여 서는 나라이다(시편 2 장). 이것은 이 세상 나라는 죄로 인하여 어두워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다니엘은 예언하였다. 그 나라는 역사상에 일어나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다.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나라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다.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가 마귀를 성령으로 쫓아내셨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온 증거였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다시 오도록 구하기 전, 이미 온 그 나라의 전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는 자가 되고 나의 전 소유로 아낌없이 값진 진주를 사는 자로 살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린다. 이미 온 그 나라는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미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전진한다. 이런 두 사이에 긴장(tension)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다. 이미 임한 나라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주어진 위치에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자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교회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 개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감으로 되는 것이다. 그 나라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하고, 그 나라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 속에 이런 나라의 속성을 찾아 보아야 한다. 그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사는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 외형적 모습을 이루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이것을 초월한 실제적 일인 것이다. 다니엘의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도 그대로 그리스도인인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3. 당신 의지를 주님 의지 위에 세우라

의지(volition)란 인격의 삼 요소, 지성, 감성, 의지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능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를 가리킨다. 의지를 다른 말로 뜻(will)이라고 한다. 성경은 이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겿세마네 동산 기도의 결론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자기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두는 결정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의지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 이 의지는 때로는 결심으로, 때로는 소원으로, 때로는 고집으로 나타난다. 이 의지의 기둥을 든든한데 세우는 자가 복되다. 그러나 약한 곳에, 변하는 곳에 세우는 자는 믿을 수가 없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바로 자기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세웠다는데 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것이 그의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둔 모습이다. 그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둔 인생을 살 때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상황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정하는 생활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런 의지를 세우려면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는 성경에 표현되었다. 성경은 하나님 의지의 책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충만하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그의 의지를 가리킨다. 그것의 요약인 십계명과 사랑 계명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의지 위에 우리 의지를 세울 때 보장을 받는다. 절대 의지에 나의 약한 의지를 세우는 지혜자가 될 때 바로 분별하고 바로 살아 나갈 수 있다.

둘째, 유혹을 이겨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지를 알고서도 자신의 의지 위에 하나님의 의지를 맞추려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인간의 얕박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다니엘은 당한 환경이 어려운 처지로 자기 신앙의 절개를 꺾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 그럴 때 그는 무엇을 했는가? 다른 소년들이 쉽게 따르는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거기에 자신을 드렸다. 이런 외적 환경의 유혹을 이김으로 자기 의지를 하나님 의지 위에 세웠다.

셋째,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한 다니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의지 위에 세우는 자이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을 보아야 한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그 의지가 빛이요, 그 의지가 소망이요, 그 의지가 더 강한 것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우리 자신의 뜻을 세워나가자.

14. 이해할 수 없는 바울

바울은 다메섹 체험 이후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 받았다.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경건한 유대인이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삼층천 체험 및 많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으로 신약의 절반 가량을 기록한 계시의 도구이다. 이만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재빠르게 응답을 받을만한가?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사천리요, 만사형통이요, 백전백승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서를 읽다보면 바울의 이해할 수 없는 면모를 본다. 그것은 그의 기도 제목과 그의 사업이 너무나 인간적이라는데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다. 그러나 단번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해 기도하면서 여러 번 길이 막힌 경험을 했다. 믿사오니 하고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 해를 인내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다. 얼마나 인간적인가? 그 역시 당하는 고생이 많았다. 어려운 시험 틈바구니에서 고독과 난관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우리도 주님 섬김에 기적, 능력, 희한한 일만을 추구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여러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주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더 좋아 해야 한다.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 대사도 역시 성도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인간이다. 다메섹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나간

것이 아니다. 아라비아 3 년의 연단, 예루살렘 교회의 원사도들에게 자기 교훈을 점점 받고 확인된 다음 나아갔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존중히 여기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기도를 부탁하였다. 그 기도 제목은 유대의 순종치 않는 자의 손에서의 구원과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김을 성도들이 받음직 하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 얼마나 실제적이지요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엿보이는가? 오늘날처럼 큰 비준, 적극적 사업, 큰 목표, 큰 열매, 세대를 주름잡는 교회 능력,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자만에 차있거나 없으면 한숨 쉬는 가치관과는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가? 그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자처럼, 겸손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만 하려했다.

물랑주의, 기적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의 그릇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 바울의 인간적 섬김의 사역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한다. 성경의 밝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바로 발견하고, 우리 모두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인간이 되자! 인간은 인간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깨우침이기 때문이다.

15. 소망의 하나님

미얀마에 사이클론의 재난에 이어 금주에는 중국에 진시황의 왕릉 관광지로 유명한 쓰촨성(四川省)에 진도 7.8 도의 강진으로 4 만여명이 죽고 실종된 사태가 일어나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찾게된다. 로마서 5 장 8 절-13 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다고 고백한다. 바울의 소망은 한마디로 완성된 구원이었다. 구원 혹은 구속을 빼 놓은 소망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망, 비존을 꿈꾸고 나간다 할지라도 죄에서의 구원이 없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다. 그 마지막은 허무이기 때문이다. 밭의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를 짓고 영원토록 즐기리라는 한 부자의 터지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내 열방에 흩어진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경륜(계획)을 바라보았다. 이 경륜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망을 이룬다. 구속 역사가 모두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골자이다.

또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소망을 가졌다. 이 중요한 소망을 이루려고 성부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신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일하신다. 때로는 보슬비처럼, 때로는 불처럼 일하신다. 이 사역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현실화된다. 제일 큰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자신 속에는 언제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정욕과 부패성이 돌덩이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호색을 띄고 나타난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왕국을 꿈꾼다. 경건을 이용하며 직분을 이용하여 소망 아닌 소망의 신기루를 따르는 것처럼 된다.

그러나 택한 자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참 소망의 길을 걷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성령을 좇아 갈 때만 우리는 참 소망과 참 비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산 소망이다. 영원히 남는 소망이다. 그래서 일시적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맛본다. 이것이 영생의 체험이며 이것이 성령 충만의 맛이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소망과 기대를 거는 자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이다. 이런 소망을 아는 자에게는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바울처럼 이런 산 소망을 갖고 성경에서 샘을 파며 기도 속에서 소망을 꿈구며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한다. 어려움을 당하는 때야말로 우리으 소망이 더 선명해지는 순간이다.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정해 놓으신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

16. 나의 힘되신 주님 (합 3:17-19)

지난 10 월 특별새벽이슬기도회 중 2008 년 새해의 비전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 “주는 나의 힘이시라”는 진리를 붙들게 하셨다. 그 때 성령이 제 마음에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향하여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뛰어 다니는 사슴의 그림이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인랜드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 기꺼이 순종하려한다.

오늘 생각하는 하박국의 확신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구원도리를 말할 때 하박국의 계시로 돌아가 설명하기 때문이다. (롬 1:16-17) 금년부터 3 년간 우리 교회가 집중하려는 “에베소 교회 부흥의 재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첫째, 목표는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다. 바울의 2 차 전도 여행 때 전한 복음으로 침체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 부흥은 소아세아 뿐 아니라 로마의 복음화까지 겨냥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일주일간 서원의 시간을 보낸 바울의 가슴에 그려진 성령의 청사진이다. 12 명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오순절 역사를 경험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 년간 성경을 가르쳐 전 아세아가 복음을 들었다고 말한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경의 순수한 복음을 먼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가정 식구가 알고, 우리 교회가 알고, 나아가 우리 이웃으로 이

복음을 알아 구원을 받게 하는데 있다. 그러자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부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방법은 하박국의 믿음이다. 어떻게 이 부흥이 일어나는가? 물론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갈등 속에서 주께 받은 참 믿음의 내용인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확신으로만 가능한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 (무화과, 포도, 송아지, 감람, 소출)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일이다.

셋째, 힘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2007 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여러 난관과 답답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으로 주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 말 못하는 사정을 마음에 두고 탄식하며 기도하였고 미움이 생길 때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려고 애를 쓴 것을 주님은 잘 아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크게 배운 진리는 언제나 어디 가든지 문제를 피해가는 도피자이기 보다 문제를 끌어안고 거기서 울며 씨를 심는 파종자가 되어 사막을 오아시스로, 소돔 고모라를 에덴동산으로 바꾸는 개혁자가 되겠다는 결단이다.

넷째, 조용한 말씀 공부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처럼 겸손히 행하신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본을 따라 나갈

것이다. 단 기간에 무엇을 이루려는 것보다 장기간 아니,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히 견디며 나갈 것입니다. 바쁜 중에서도, 고생 중에서도, 불가능의 자리에서도 한 알의 밀을 심을 것이다.

다섯째,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신다. 주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박국의 발견한 복은 노른자위, 하나님만의 능력이란 진리를 살 속 깊이 체험하기를 기대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뛰어 다니는 놀라운 사건과 즐거운 사건들이 파도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했어도 아침에는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17. 30 년의 미주 목회 회고

한국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곧 미국서 교회를 개척한 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러 30 여년이 훌쩍 넘었다. 평생 한 교회를 섬기겠다는 나의 의지는 그대로 반영되어 10 여년이 지난 오늘날 브니엘 교회와 연합하여 후임목사가 되어 근 10 여년을 섬기고 8.12 일이면 정식으로 사임을 한다. 그렇게 된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8 년전에 맞은 중풍 후유증으로 액손을 취하기에 지장이 있어 활기찬 목회를 하지못해 교인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이고, 다른 하나는 아픔으로 시작한 캄보디아 교육선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이 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되어 여기에 평생적을 두고 활동하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임한후 나는 이 교회의 선교사로서 캄보디아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다. 30 년의 나의 목회를 돌이켜 보면 몇가지 기억되는 것이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금방 수백명이 모여올 것이란 기대를 가졌으나 전혀 다른 일들이 전개되었다. 성경으로 땅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게하리라는 목표에 따라 초창기부터 집집마다 성경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신앙성장반에서 확신과 생활을 13 주에 걸쳐 가르치며 성경공부를 그렇게 강조하며 그대로 실행하였다. 어느 가정은 문밖에서 30 분 기다렸는데 퇴근한 교인이 오늘은 피곤하여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신앙이 약한 남편이 페인트 일을 마치고 돌아와 쉽게 공부하도록 북마크를 성경 여기 저기 붙여 놓아 새빨간 눈으로 성경을 공부하던

기억이 난다. 며칠 전 만난 그 집사님은 지금, 성경 2000 절을 암송한다고 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여자 모임에 설교까지 하는 책임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모두 목사님의 성경공부 가르침 덕분이라고 감사해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때 공부한 사람들이 다른 여러 교회에서 성실하게 장로들, 권사들로서 일하고 있다. 캄보디아 사역에도 내게 별 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성경을 공부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작은 모임일지라도 성경이 바로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고 그 변화는 어떤 조건에서도 그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브니엘 교회에 온 후 나의 사역은 후임 2 년만에 스토크를 만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었다. 중풍이 그렇게 힘이 빠지는 것이라고 미처 몰랐다. 설교할 때마다 잡히지 않는 혈압으로 오늘 설교하다가 죽을 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수없이 가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난관에서 나는 글 쓰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 손으로 타이핑을 하고 머리가 아파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하던 때가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다. 그 덕분에 많은 글을 번역하고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었다. 사실 캄보디아의 교육 선교는 그 동안의 모든 설교, 교재 그리고 연구 번역한 내용들을 영역하여 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몸이 많이 좋아져서 온 종일의 가르침 사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 사역이 나의 생애 마지막이 될 것처럼 보인다. 일정한 선교사의 훈련도 없이 시작한 사역이지만 꿈은 대단하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개혁주의 신앙을 심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 뜻이라면 적어도 20 년 동안 사역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18.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안

흔히 우리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시대 혹은, 뉴에이지 시대라고 부른다. 포스트모던이란 과거와 현재의 모든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생각하는 세속 철학의 하나이다. 그 속에는 절대자 하나님의 권위마저 인정치 않는다. 결국 그 자신이 절대 권위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 발상이다. 극도의 인본주의가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 시대는 벌써 성경이 예고한대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무대이고 인본주의의 실상을 드높이는 때라고 말할 수 있다.

권위를 부정하는 식의 방법은 성경시대에도 계속 나타났다. 에덴의 아담의 반역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고 르호보암의 실책(대하 10:11)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솔로몬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는 통치를 위하여 자문을 구할 때 가벼운 짐을 원하는 노인층의 제안보다 강력한 리더쉽을 원하는 젊은층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는 포스트모던 형태의 길을 택한 것이다. 자신을 강하게 하는 길이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강한 무기를 생산하고 왕실을 견고케 하기 위해 처첩과 자녀를 많이 두는 일에 박차를 가했다. 인간적 리더쉽으로 강성을 꺾하였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 무조건적으로 전통의 권위나 성경의 가르침의 권위를 경멸하고 자기의 지혜와 수단을 자랑할 때 그는 현대판 포스트모던주의를 만드는 셈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교만이고 징계이고 멸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한 길은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드리고 그것을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인 성경을 떠나면 저절로 부패하고 세상적 정욕의 지배를 받아 하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가나 기준이 없는 것이기에 결국 실패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은 일차적 대안이다. 성경의 사상을 내 것으로 삼아 굴복하여 그리스도 중심한 체계로 만드는 것이다. 그때 그는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섬김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게 된다. 이것이 소위 섬김의 리더쉽이다. 자율주의의 권위는 멸망의 길로 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것을 일거리로 삼아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이란 따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파수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포스트 모던 사상을 극복하는 길일 것이다. 계시인 성경에 의존된 구원만이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이기는 길이다. 르호보암 리더쉽은 망하는 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쉽을 배워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심혈을 쏟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그 길을 가자.

19. 보편 교회

보편교회란 모든 그리스도인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쉽게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킴으로 그 속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들어있다. 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의 어린양을 향한 찬양 속에 모든 방언,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로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보편 교회이다.

그 개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에도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그 중 우리는 시편 87 편의 고라 자손의 찬양에서 이것을 발견한다. 시온을 노래하는 시인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대상이요 모든 족속이 그에서 나오고 모든 근원이 그에게 있다고 했다. 특히 4 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불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낳다 하리로다.”라고 할 때 이미 보편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 애굽을 가리키는 라합과 바벨론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무대로서 마귀, 세상 그리고 사망을 상징한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본산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반된 원수이고 대적자이고 철저한 지옥 자식들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 곧 구원받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사야의 예언 속에 장차 애굽의 중앙에 제단과 성소를 세울

것을 예언하신 것과 통한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애굽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나올 것을 보인 예언이다.

바벨론 역시, 종말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에 보편교회에 소속될 부류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뱀전 5:13 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언급한 베드로의 관찰에는 바벨론에 있는 보편 교회를 보여준다. 그리고 불레셋과 두로 곧, 가나안의 원주민인 그들에서도 자기 문제를 들고 주께 나아와 믿음이 큰 여자라고 칭찬을 받은 가나안 여인이 일어났고 또한 에디오피아의 조상으로 알려진 구스 역시, 빌립의 전도로 복음을 받은 간다게 국고를 맡은 구스의 내시가 이 반열에 들어선다.(행 8:27)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 시대에는 이 보편교회의 가르침이 더 실감있게 되었다. 방학만 되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온 세계의 타 종족들에게 단기 선교, 장기선교로 여행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할지라도 그들 속에 택한백성 곧 보편교회 일원이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창세 전에 감추인 비밀, 복음을 전할 때 감추워 있는 보편교회는 나오도록 되어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캄보디아의 선교지에도 보편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자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 보여진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반드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것이다. 동성애 죄가 버젓이 선의 모습으로 활개치며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를 흔드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라도 교회가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이유는 창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 경륜(administration) 때문이다. 교회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첫째, 그리스도 계시와 사도와 선지자들의 교훈이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 20 절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와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세워졌다고 말함은 교훈 곧 성경을 가리킨다. 성경은 특별계시로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계시의 요점은 그리스도이고 그의 구원하심이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교훈인 성경 계시를 믿음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성경과 연합되어 그 열매를 나타냄으로 보여진다. 만일 교회가 성경을 떠나 다른 교훈과 결합된다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명하다.

둘째, 그 안에서 통일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언약 관계를 나타낸 말이다. 그리스도는 왕, 남편, 주인되시고 교회는 신하, 아내 그리고 종이란 것이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란 말로 가장 잘 표현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됨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고 특히 만물의 충만을 교회 안에 넣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란 것이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중심하여 통일을 이루게 하신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를 영원히 찬송할 때 최고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난다. 사도는 그가 삼층천에 올라가 어린양의 신부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보았을 것이다. 지금도 불완전한 지상 교회 속에 성령은 끊임없이 영화로운 교회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일하고 계신다.

셋째,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다. 법궤 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그 안의 시온좌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지금 교회 위에 머물러 있다. 창조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주도하신 임재의 영은 지금도 교회 위에 임하셔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려고 부단히 일하신다. 창세 전에 세우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그의 임재하심으로서 그 절정에 이른다. 그러므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는 그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이 된다. 아들을 영화롭게하신 성부는 그 안에 있는 교회를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상태로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교회는 그 영광스러운 빛 안에서 자기의 빛을 보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21. 구원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나타난 영광을 봄으로 풀려진다. 바벨론의 포로귀환이나 출애굽 사건은 과거에 나타난 구속의 그림이다. 죄사함으로 시작되는 구원은 어떤 형태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는가? 과연 구원의 영광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보인 시편 85:10-11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고 말한다. 마치 처녀 총각이 서로 연애하는 장면을 생각해 하는 그림이다. 만나고 입맞추고 그리고 서로 사모함이 그러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을 나누는 구원은 정적이거나 수동적이지만 않고 동적이며 능동적이다. 이것이 구원의 영광이 비추이는 현장이다. 거기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인 하나님과의 연합은 실제로 어떤 것인가?

첫째, 인애와 진리의 만남은 그 영광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인애란 사랑이고 진리란 진실성을 가리킨다. 이 둘의 만남이 첫 연합이고 기본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의 만남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어떤 무엇이 끊을 수 없다.(롬 8:39) 그러므로 진리 없는 사랑은 악하고 타락이며, 사랑없는 진리는 균형을 잃어 치우친다. 사랑과 신실만으로도 아름답고 능력있고 유익하지만 서로가 만나질 때 더 아름다워지고 강해진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이 둘의 만남의 스파크는 불을 피우듯이 새로운 열매를 나타낸다.

둘째, 화평과 의의 입맞춤이 그 영광의 누림이다. 이 둘의 입맞춤은 아들에게 입맞추는 메시아의 시편을 생각하게 한다.(시 2:) 구속의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생겨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우선 의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때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는 이웃과의 화목의 근거가 되기에 바울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했고(롬 12:17-19) 야고보는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했다. (약 3:18) 화평이 있느냐? 그 배경은 의가 있을 것이고 의가 있느냐 곧 화평이 다가올 것이다. 이 둘의 입맞춤은 구속받은 자가 항상 누리는 열매이다. 복음은 이것을 목표로 역사한다. 영생의 삶이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바로 그 입맞춤이다. 그것은 성령이 능력의 세례받음이라고 말하는 푸리탄의 성령관과 통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는 베드로의 경험이 바로 이것이다. (벧전 1:8)

셋째, 진리와 의 간의 사모심이 그 영광의 광채이다. 구속의 은혜는 만남과 입맞춤만이 아니라 서로의 사모심의 열정으로 표현된다. 땅에서 솟아나는 진리를 내려다보고 응원을 보내고 만나고 싶어하는 인격적 교류를 항상 놓치지 않는 그리움이 있다. 스테반이 돌탕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인자께서 서서 지켜 보셨듯이 의는 항상 말씀에 신실한 마음을 향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때로는 치료의 광선으로, 때로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붓는다. 성령안에서 그의 영광을 보는 자는 그의 형상으로 변하여 간다. 이 경외심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와 사랑은 이 연합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선한양심이 파선되고 방황하는 우리 시대에 이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실재를 즐거워하는 삶만이 이 곤고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할 것이다.

22. 이상 골짜기 (The Valley of Vision)

이상 골짜기는 비존 골짜기라는 말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이사야가 받은 이상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란 말을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계시로 가득 찬 성읍이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우리의 주목거리이다. 이사야 22 장에 보이는 예언은 바벨론으로부터의 멸망을 경고한 내용이다. 그렇게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성읍이 공포로 가득 찼고, 그렇게 모든 민족의 중심지가 되던 성읍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택한 언약 백성이라도 회개치 아니하고 경외심을 갖지 않을 때 여지없이 쓰레기더미에 던지시기 때문이다.

왜 그런 화가 임하였는가? 두 가지 죄악이다. 그들의 번성과 부강과 번영이 자기들의 힘으로 되는 줄 아는 어두움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잊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민족이었다.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행도 그의 은혜요 마지막도 그 은혜로 되었다. 그런 자들이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 것이다. 그것을 보면 받은 이상이 많고 계시가 많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심으로서 그 은혜를 유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신자가 은혜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고후 12:7-10)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 부으심으로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행 2:16-21)”고 했다. 이사가 예언의 성취시대에 사는 교회는 그 이상으로 채워진다. 그렇다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은혜를 거두어 가심을 기억하여야 한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의 이념은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을 받는 사회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일을 지켜 나갔을 때 미국은 잘 되었지만 성경을 점점 떠나가자 그 사회는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 역시 이 일에서 예외라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고로 우리는 내게 있는 가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현재의 계시인 성경을 사랑하여 그 안에서 성숙해야 한다.

도미노 현상 같은 경제 불황, 마지막 심판 죄인 동성 연애 결혼법, 그리고 신자의 정신적, 영적 부패성은 우리 시대의 재앙이다. 이상 골짜기의 예언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나부터 책임지고 회개하며 그리스도 공로를 믿고 나가자. 갈보리 속죄제는 이 죄를 능히 덮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해 드리자!(을 2:18)

23. 옛 사람과 새 사람

바울 사도의 신학구조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칭”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특징을 보이는 표현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한 다.(엡 34:17-32) 이것은 욕과 영, 불의와 의,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대조를 이룬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이 두 대칭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먼저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옛사람이란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생명에서 떠나있는 마음이다. 그 결과는 더러움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 분노, 도적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을 서슴없이 하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꾀방과 악의가 제자리를 지킨다. 이것은 더러운 옷처럼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도 역시 이런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것은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죄의 권세는 십자가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죄의 임재는 지금도 우리 속에 일한다. 이것과 싸우는 노력을 중단한 자는 이미 그 손아래 노예가 되어 외식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바울 자신도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한 것은 바로 이 싸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변화 받은 자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이것을 빛의 열매를 가진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으로 표현 한다. 새 삶은 적어도 뚜렷한 세 증거를 갖는다. 1) 의의 사람이다. 법적 의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 의를 가진 자로 살아간다. 그의

말과 행동과 판단 기준이 의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것이다. 칭의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있는 사람이 된다.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방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고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실 수 있는 10 명의 의인을 찾으신다. 이런 실질적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사람의 삶이다. 2) 새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이란 진실의 사람을 가리킨다. 진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뿐이기에 새 사람은 진리를 먹고 산다. 그 진리를 즐기며 그 진리로 인격화되기를 원하고 진리의 허리띠와 방패로 무장한다. 3) 그리고 새사람은 거룩의 사람이다. 영육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구별된 삶을 안다는 것이다. 죄악이 서식하는 곳에서 자기의 선을 심어 의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빛이 난다. 주변이 밝아지고 그의 그늘에 거하려는 사람이 찾아온다. 여기 나오는 새 사람이란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바로 이런 의와 진리와 거룩의 요소를 모두 지닌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란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변화의 삶을 위하여 사랑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부단히 일하신다. 그의 뜻을 향하여 나가자.

24. 선교 지망생

20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선교는 매우 힘들었다. 선교 헌금을 모아 놓고도 전달할 길을 모색하려고 힘든 때가 있었다. 지금은 선교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너도 나도 선교라는 명칭을 붙여 선교에 집중한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의료 선교사로 한 주간 두 주간 일을 하고 돌아온다. 어떤 단체는 자기 비즈니스로 가서 선교 임무에 뛰어들다. 또 대학교수, 직장 직원으로 가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말 고무적이며 선호할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평가 이면에 한편으로는 선교사라는 직분에 대한 경시풍조가 생긴 것 또한 사실이다.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교적 사명을 띤 사람들이지만 선교사란 특별한 부름을 받은 직분임을 이해해야 한다. 전도하고 싶다 해서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소정의 교육과 훈련 과정 없이 여행 삼아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의약품을 전해 준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의 빛 아래서 볼 때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일전에 본인도 두 번이나 중공에 다녀오면서 선교라는 것을 쉽게 생각한 일이 있었다. “교회에서 필요하면 나아가 선교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 상황에서 얼마든지 외지에 나가 복음만 전하면 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쉽게 했다. 그러나 선교는 그 이상의 것임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

“선교사는 목사 중 목사이다”는 말이 있다. 선교사는 외지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목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명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친히 세우시는 은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바울처럼 선교사는 주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인간적 기분이나 단체의 임명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야만 한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가가 관건이란 말이다. 소명 의식 없으면서도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하는 일이다. 그는 자기 탑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 내의 바벨탑 세우는 일이며 선교라는 거룩한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욕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 타이틀을 이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오늘날 서구 선교기관이 범한 잘못이다. 선교를 빙자로 하여 경제식민 정책을 펴 나간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정말 선교하다가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가? 정말 자녀가 죽고, 아내가 병들고, 심지어 생존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 굶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복음 위해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상급이나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는가? 정말 복음만으로 만족하는가? 여기에 아멘한 자만이 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참 선교사 모습을 가진 몇 사람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한결 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의욕이 짙은 사람들이다. 선교 불을 일으키고 자원을 찾아 권고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바른 소명이 확인된 선교사가

되어야한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25. 야곱과 요셉의 소망

구약 족장들도 신약의 구속의 소망이 있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도 있었는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그것과 동질의 것인가? 이런 물음을 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된다. 단지, 그들은 그림자요 예표적이라면 신약의 그들은 사실적이요 완성적이었다. 왜냐하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기약하는 모습 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부활 소망은 주님과 함께있는 임마누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14-18 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 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져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음을 말한다. 임마누엘의 복이 모든 축복의 결정체요 결론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체험이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것으로 교회에 복을 주셨다. 이 세상 순례가 다 끝난 다음에 펼쳐지는 세계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상태이다.

족장 시대에도 여전히 이 임마누엘의 복이 진정한 복임을 분명히 보인다. 아브라함도 물질이 많고 명예가 올라가고 이민생활의 안녕을 보장받는 것을 복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 상태가 바로 복임을 믿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동일한 부활 생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가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얻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한 셈이다. 야곱도 그의 말년에 도달한 지점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소망가운데 죽었다.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 것이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장래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것을 내다보았다. 이것은 부활생명이 그들 속에 있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나타난 이 표현들은 부활 소망이 이미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일하셨음을 보인 것이다.

신약의 완성된 빛 아래 사는 우리들은 이런 부활의 소망이 늘 넘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상태이다. 고난당하는 환경일지라도 이 부활의 강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이 부활 생명의 능력, 곧 임마누엘의 맛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속한 세상에서 제 구실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의 노란자위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자.

26. 선교는 전쟁이다

70 여년 대치하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지구상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념의 전쟁 보다 더 치열한 것이 영적전쟁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많이 묘사한다.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 인 삶은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전쟁의식이 없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영적 혼수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믿음이란 단순한 이념 변화 정도가 아니라 신분 변화이기 때문이다.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전쟁이다. 말씀을 받는 일도 말씀을 제하려는 마귀와의 싸움이고 기도할 때도 역시 치열한 싸움이 생긴다. 겉 날림 기도가 아니라 심령을 통하는 기도는 언제나 전쟁을 통해야한다. 무엇보다 자기와의 싸움이 기도이다.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성향, 부패의 성향은 편해지기를 좋아하고 육적 안일로 나가기를 기뻐한다. 이것과의 싸움은 기도자의 필수요건이다. 칼빈이 말한 기도의 4 대 법칙인 “경외”, “회개”, “겸손”, “확신”에 대해 말하기는 쉬워도 기도시간에 이것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그 외에도 바른 교제, 바른 봉사도 이 영적 싸움이 아니고 되는 일이란 없다. 정말 “나는 이 싸움을 의식하는가?”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져야한다. 무엇보다 선교는 더욱 더 치열한 전쟁이다. 선교란 타 문화권에 있는 영혼을 대상한 전도이라고 한다.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종족들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믿어 세례 주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이 선교이다. 선교는 우리 주님이 교회에 맡긴 대 위임령이다. 이것은 너무 중하기에 절대 권위로서 명령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곧 교회라면 반드시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캄보디아 선교 현장 역시 전쟁이다.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성경화한 현장이 되게 하려면 먼저 언어와의 싸움이 일어나야한다. 그 나라 언어인 크메르어는 너무 이상해서 여간 훈련이 아니면 익숙하기가 매우 힘들다. 어떤 이는 그 나라 말을 빨래줄 걸어 놓은 것처럼 한 문장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그리고 환경과의 싸움이 있다. 적도 근처라서 찌는듯한 더위 때문에 육체의 연단이 아니면 견디기가 힘이 든다. 땀기라는 모기에 쏘이면 응급실로 가야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을 갖춘 나라이다. 더 중요한 싸움은 성장하는 경제로 오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싸움의 한몫이다. 돈이 들어가면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순수성을 빼앗아 버리는 마력이 들어있다. 한국의 네비우스 정책의 자립 자조의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되어야만 장래가 있다. 더 중요한 싸움은 무엇보다 선교사 자신과의 싸움이 절실한 곳이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선교는 계속되지 못한다. 이 영광스러운 전쟁에 동참하자.

27. 그리스도를 아는 일 (Knowing Christ)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한 그리스도인의 일평생 걸리는 일로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의 제일의 목적이라(Westminster 신앙고백)는 대답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중생이 그리스도를 앎으로 시작되고 성화로의 성장도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시적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체험적 앎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성장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앎으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 과정은 높으며 구체적 사건들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 우리 인격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이다. 그의 사랑을 맛보아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의 덕을 알아 덕의 사람이 되고 그의 절제를 배워 균형있는 성품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성장과정은 나무가 과일을 맺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과 과정을 거쳐야한다. 한 나무의 성장을 관찰하면 열매를 맺기까지 심고 가꾸고 물주고 거름을 주는 많은 수고의 과정이 있고 열매를 따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려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열매가 맺혀진다.(요 15:5)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할 일은 그저 그 안에 거하는 일 뿐이다.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통한 그의 생명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과정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알게 되며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신지식이 바로 영생의 내용이다.(요 17:3) 이 지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조화된 인생 곧, 본래의 인간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변화한다. 오늘날 지식은 많은데 진정한 신지식이 없다, 머리를 잃은 지식으로 범람한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앞으로 자라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현재 당하는 사건이 어떠하든지 이 모두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의 과정이요 도구인줄을 알고 진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음식이요, 나의 생수이며 나의 힘이며, 나의 보장이며, 나의 평탄이며 그리고 나의 성공임을 알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체적 적용의 방안을 알게 되며 그리스도인 삶의 진정성을 알게 된다. 정말 우리는 바울처럼 누구든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점점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살아가야만 한다.

28. 나아만의 감사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장관으로 그 나라의 2 인자였다.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의 대우를 받았지만 천형병인 한센 병이 걸려 엘리사를 찾아와 치료를 받음으로서 그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지혜를 얻는다.

첫째, 그의 감사는 문제에서 일어났다. 문둥병이라는 저주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감사를 배웠기 때문이다. 당시 문둥병이란 죄 때문에 주어진 저주로 통하였다. 미리암도, 웃시아왕도 그러했고, 요압장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도 후손 중 문둥이가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방나라 나아만은 왜 이런 병이 걸렸는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임을 배운다. 그가 아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1 절). 그는 이방에 있었으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가 한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현재의 문제를 주께 가지고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배워야한다.

둘째, 그의 감사는 그대로 하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 저주 덩어리, 문둥병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았을 때 주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셨다.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하라”는

것이다. 그의 교만된 마음을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거부하던 그의 자존심이 순종으로 바뀌어졌다. 일곱 번 목욕하매 그의 환처가 깨끗이 나왔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왔다.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섯 번까지 낮지 않다가 끝까지 하였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치료되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고, 그대로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것이다.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도 그대로 할 때 일어났다. 이것은 모두 순종으로 구속을 이룬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감사는 말씀 그대로 할 때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말씀 순종이 없는 감사는 가짜감사이다. 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에서 부터 주님과과의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맛보며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를 알지 못하는 감사는 외식된 감사가 되고 만다.

셋째, 그의 감사는 경배자로 남게 했다. 나아만의 감격은 매우 컸다.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가지고 온 예물만 아니라, 더 갖다 바치고 싶었다. 그러나 엘리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배의 욕망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하였고 다시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사원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흙을 싣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경배자로 있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경배의 삶으로 나타난다. 감사한다고 하면서 경배하는 자의 욕망과 감격이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다. 감사해 놓고 자기 욕적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 있을까? 이번 감사 절기에 나아만의 감사가 우리

영혼을 지배하기를 갈망하자. 그러기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가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감사히 받으며 그대로 순종하여 경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감사의 샘물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29. 한 장로의 본 (The Example of an Elder)

요한 2 서는 사도 요한이 한 부녀의 가정에 편지한 내용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그리스도인의 구속계시가 된 것은 단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신앙 본을 칭송하려는 것이 아니고 격려와 창찬의 차원을 넘어 모든 교회가 따를 참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한 장로의 모범을 배운다. 그 장로는 누구인가? 바로 본문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다. 사도이며 선생이며 제자인 그는 교회 사역에서 볼 때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장로였다. 장로는 목사로서 교회를 다스리며 먹이고 치는 직분을 가진 자로 3 가지 모본을 보였다.

첫째, 택한 가정을 돌아보았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다. 택한 자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생명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임무이며 교제를 통해 피차 도움을 받고자하는 행동이다. 이것이 교회의 특성이다. 주고받는 관계가 자연법칙이나 사회생활에도 생명이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절실한 행동이다.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그 사귀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과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빛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빛으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며 그리스도와 살 깊은 연합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의 서로 서로 돌보는 일에 장로의 모본은 당연한 것이다. 교회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봉사나 심방은 바로 이 교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둘째,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주님과 그의 말 씀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알게 된다. 이는 진리 안에서 만 진정한 사랑이 나오며 하나님 안에서만 진리와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속성이 바로 진리화 되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자의 성향이고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진리와 사랑도 귀하지만 자신이 먼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악기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진리의 음이 나와 서로 조화롭게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진리의 역동적 삶이 있었다. 장로는 그 자신이 진리 안에서 머문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었다. 진리가 개인, 가정, 그리고 세상에 스며들어 그 교훈 안에 거하기를 원하였다. 이런 진리의 역동적 본이 장로에게 있었다.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한 줄달음과 선한 싸움을 추구하라는 본이다. 정말 그는 환난시대에 밋모 섬에서 귀향 살이 하면서 고난을 견디었다.

오늘날 진리 안의 역동적 사람이 요구된다. 진리의 삶은 칼처럼 끊어버리고 두들기고 선을 그리는 차가운 가슴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하고 교제가 충만하고 난관 속에서도 희망이 넘치고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본이 메마른 때에 사도 장로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자.

30. 그의 기름 부음 (His Anointing)

기름 부음 (the anointing 요일 1:27)이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구약에 3 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그림자요, 상징이라면 그 실체요 실상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받은 분이시다.(요 3:34). 그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보자와 완성자로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도록 되어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 생명 역사를 일으킨 것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난도 빠짐없이 이 기름 부으심과 연결되어 있기에 후버댐에서 공급되는 물이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관개수와 물 공급을 책임지듯이 모든 신자의 모든 필요에 따라 영원히 공급되도록 되어있다.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는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는 생명의 흐름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거하신다는 주장을 한다. 이것은 성령의 주장이며 아버지의 증거이다. 이 기름 부음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신자는 그 안에 무진장한 복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자리잡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사정이 어떠하든지 체험할 수 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다른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 성령님이 교훈의 최종적 권위자란 말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지식을 가지며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 죄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게 되며 오직 그 분에게만 사는 길이 있음을 믿는 자리에 나간다. 이것은 이론적인 차원을 넘어서 체험적 차원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에 우리는 범죄 하지 않는다. 거듭난 자는 다시 죄를 범치 않는다는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고 고의적인 죄 곧 성령훼방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다. 날마다 성령의 자상한 가르침으로서 우리는 책망을 받으며 교정을 받으며 교훈을 받는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는 우리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불러도 좋다.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설교 시에, 예배 시에, 전도 시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요구되는 귀한 은혜이다. 변화무쌍한 세상 흐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이 무진장한 자원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내 것으로 활용하자.

31. 성령의 인치심 (The Spirit's Sealing)

과거 20 년 전만 하더라도 성령세례와 중생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와 맞선 성령세례와 중생을 구분하는 오순절 교파의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단이라고까지 규정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었다. 이는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견해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방언이 성령세례 받은 증거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사마리아와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들어 그 이론을 고집하여 혼란을 겪은 일이 있었다. 세월의 검증을 거친 오늘, 이 견해는 점진적으로 수용 되어 로이드 존스의 “성령세례(Unspeakable Joy)”라는 책이 나온 이후부터 절충적 견해로 바뀌어졌다. 즉 성령세례가 중생이라고 보면서 그 후에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주권적 기름 부으심인 능력의 세례가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능력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사모하는 순서를 가져야하고 주장해야한다고 가르쳤다.

필자는 청교도 설교자들을 접하면서 그 시대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하여 놀랐고, 그들이 더 앞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흔적을 보고 새로운 통찰력을 가진 일이 있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의 차이점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몇 가지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서로 존중하여 공존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실례로, 로이드 존즈는 엡 1:13 절의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중생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롬 5:5 절의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이 성령의 세례라고 주장한다. 중생과 성령세례를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청교도 설교자 리차드 시브스, 토마스 굳윈의 경우에는 신자 속의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으로 본다. 이 인치심은 성령의 중생하심과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활동하심보다 성령의 임재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는 성령의 인치시는 일은 바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 후 펄킨스(William Perkins)의 계승자인 바이어(Paul Buyer)는 이 둘을 절충하여 “성령과 성령의 은혜는 우리 구속의 인치심으로, 전자는 모든 신자가 소유한 인치심이고 후자는 성령의 은혜를 의식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 한다.

필자는 이 절충안을 그대로 따르고 싶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구속에는 이런 성령의 중생하심으로 내주하시는 일이 필연적이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 속에 분명히 일어나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제나 탄식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우리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자.

32. 영혼의 진동

지진의 진동과는 달리 성령이 임하여 생기는 영혼의 진동은 신자의 영적성장에 매우 유익하다. 어떤 점에서 유익한가?

첫째, 하나님 임재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신자가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체험이 있다면 변화산의 경험일 것이다. 산 속에서 갑자기 변한 주님의 모습을 보는 세 제자가 “여기있는 것이 종사오니”라고 한다. 이 말이 부정적 시각에서 책임을 망각한 신비가의 정신없는 소리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임재 체험의 증거란 점에서 모든 신자에게 선호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주를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그 단 체험을 우리는 구해야한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체험, 능력 체험, 임마누엘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신령한 경험을 통과할 때우리의 거센 고집과 육체의 탐욕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체험인지 모른다.

둘째,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성령이 영혼을 터취하면 무엇보다 회개가 일어난다. 자신의 어두움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청교도 설교자 시브스(Sibbs)의 말처럼 “깜깜한 방 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햇살이 들어오면 자세히 보여지듯이 성령의 조명이 일어날 때 우리의 비참과 죄가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발견한 즉각 돌이키려는 회개의 심정이 되어버린다. 자신을 깨끗케하려하여 생명을 소유하려는 회개가 일어날 때 새 역사가 시작된다.

셋째, 믿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성장을 필요로 한다. 믿음을 심은 성령이 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신다. 성령께서 믿음의 주체시기 때문이다. 믿음의 대상인 그 분과 그의 말씀을 접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며 그 믿음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경을 접할 때마다 영안을 뜨게하여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해야한다.

넷째 소망이 넘치기 때문이다. 영혼의 진동은 영적 각성이며 영적 부흥을 가리킨다.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이 깨어날 때 소망이 생기듯이 신자의 영혼이 각성될 때 소망의 날개를 펴게 된다. 성령이 임하실 때,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는 말세의 약속이 우리 영혼에 재현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경험한 영혼의 진동은 새로운 세계, 곧 경건과 거룩으로 은혜를 받아 즐기는 고요의 나라인 것이다. 하늘의 평안이 있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두운 새해 소식들을 듣지만 내 영혼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애굽의 고센 땅처럼, 사자굴 속의 환희처럼, 그리고 풀무불 속의 평안처럼 기이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주여, 내 영혼을 진동시키소서”(학 2:6)라는 기도가 새해의 소원이 되게 하자.

33. 하나님 영광을 보는 신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려는데 있다.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영광을 보는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가 될 때 복된 일이 일어난다. 그의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1:18) 하늘이 열린다.(행 7:) 사실상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다.(고전 13:12)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하기 때문이다.(고후 3:18) 가나 혼인 잔치의 첫 기적에서도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다.(요 2:1-11) 어떻게 그 영광을 보는가?

첫째, 말씀이 있었다. 주님이 혼인집에 참여한 것이 축복이다. 모자람이 있는 집 안에 주님이 참여하신 사실 자체가 복이다. 주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 그 영광을 본다. 말씀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마리아와 한나, 엘리야와 같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약속을 이룬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약속도 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의 샘인 성경을 사랑하는 신자로 자라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둘째, 그대로 하는 순종이 있었다. 순종하는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영광을 알았다. 말씀이 있어도 순종치 않으면 그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순종이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요구된다. 순종의 도를 에누리 할 때는 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아합의

경우,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데도 몰랐다. 순수한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영광을 보며, 개인이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사무엘이 위대한 점은 “주여,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순종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 장래가 있다.

셋째.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많은 세상에 누가 해결하며 어떻게 극복할까? 그 영광을 볼 때 된다. 그 영광을 보는 자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께 모자란 것을 구하며 하인들에게 그의 말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순종했고 주님은 일하셨다. 제자들의 사역도 그런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갈망이 너무 강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봄으로서 이 땅에 일어나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야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나타나려면 말씀과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 영광이 나타날 때가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다. 그리스도 안에 비추기로 약속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하자.

34. 아하스의 죄를 경계하자

아하스는 웃시아, 요담에 이어 유다 왕이 되었으며 악한 왕으로 20 세에 왕위에 올라 36 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있다.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약 이 활발한 때로 그의 젊은 날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 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좋은 시절에 하나님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다.

먼저, 그는 이방 신상을 섬기되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몰록신에게 바치면서까지 우상을 섬겼다.

다음, 그는 앗수르 왕에게 성전의 금은 보화를 주면서까지 원조를 받아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의 동맹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의 정치적 수완은 이렇듯 절묘했으나 하나님 성전의 은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 보다 앗수르를 더 의지하는 불신앙적 행동이었다.

나아가 그는 앗수르에게 불어 그 곳에 있는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이스라엘나라도 만들도록 했다. 그 열심이 대단하여 그가 앗수르에 있는

동안 제사장 우리아를 보내 속히 만들도록 지시했다. 성전의 물두멍, 낫바다 낫소의 위치를 바꾸고 거기에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좌정하신 보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성소를 이런 이방 신상의 우상제단을

만들어 더럽혔던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나님의 1, 2 계명을 범하는데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조직적 죄악의 행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웃시야 처럼 그 자리에서 문둥이가 되게 하거나 벼락을 맞아 죽도록 하지 않고 도리어 침묵하셨다. 그의 단명은 이 죄악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다윗성에 장사하게 하셨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그의 신실성에 근거를 둔 것일 뿐이다.

아하스의 사적을 묵상하노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아들, 성전기구를 바치면서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목표를 언제나 잊지 않으신다. 물론 정한 방법까지도 주목하신다. 때로는 그의 침묵이 너무 지루한 것처럼 보인다. 겉보기에 조용해 보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카운트하신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 권위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 권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한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헌신하도록 주어진 것으로 자기 멋대로 하도록 함이 아니다.

아하스의 배은망덕 죄가 믿는 신자 안에 웅크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경계하여 내 영혼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채워야겠다. 진정한 성탄은 그리스도가 미워하는 아하스의 죄를 회개할 때 맞본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찬양하자.

35. 기도 신앙

세계적 경제 공황의 위기를 예측하여 불안해 하며 맞는 2008 년 연말에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기도신앙으로 극복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혈통을 받은 유다왕조의 한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경건의 능력이 국가적 위기에 셋별처럼 더욱 더 빛났다. 열왕기하 19:1-7 절을 보면 이 경건이 그의 기도로 증명되었고 기도에서 나온 것을 발견한다. 위기를 극복한 그의 기도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 기도 신앙이란 자신부터 회개하는 운동에서 시작된다. 몇 년 전에 그는 개혁자답지 않게 성전기둥의 금을 베껴 앗수르 왕에게 바치며 국가적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다. 일시적 유약성 때문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 아마 이 죄를 통감했으리라. 자기가 먼저 굶은 배움을 입고 다른 각료들도 굶은 배움을 입도록 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명했다. 이것이 국가적 위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온 것을 아는 조치였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 기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표이다. 이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다. 랍사게의 우롱하는 말과 조롱의 말을 듣고 하 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 그는 그 일은 긴급한 징계란 사실을 알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 적응성 있는 그의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의 당면 문제의 해답 역시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뜻을 구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 문제에 대한 일반적 원리가 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산 믿음의 목표인 것이다. 신자는 현실의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이며 방법이며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또, 기도 신앙은 중보기도를 필요로 한다. 그는 중보기도를 부탁하였다. 온 나라로 기도하게하고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원했다. 자신은 기도 안하고 남에게 기도만 부탁하는 미신적 행위는 비성경적이다. 기도로 무엇을 받아내고 자신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 신앙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문제해결보다 우리 신앙에 관심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 생명있는 교제를 더욱 더 원하신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하시며 앗스르 왕 속에 악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함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 죽게 된다는 응답을 받았다. 정말 앗스르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절하였고 왕은 우상 앞에 제사하다 암살당했다. 히스기야의 바른 기도가 문제해결의 열쇠였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히스기야의 기도 신앙으로 나아가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한다.

36. 교육의 영이신 성령 (Holy Spirit As the Spirit of Education)

교육하면 먼저 교육 시스템이나 체계적 프로그램 혹은 교육 공간과 교사들이 생각한다. 교육의 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은 날이 갈수록 미국 교육에 거는 기대가 무너지곤 한다. 하바드대생의 자살이나 컬럼바인의 총기난사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은 교육에 성공한 나라인가? 15 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처럼 문화와 문명은 발전했는지 몰라도 인간은 더 사악해지고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존 듀이(John Dewey)의 인간만능주의의 교육 철학은 인간을 참 인간으로 만들기보다 짐승과 같은 기형적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어떤 이의 말을 빌리면 앞으로의 10 년이란 세월은 종전의 50 년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한다. 성경대로 말세에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셈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교육을 지향해야할까? 문제점을 바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인간 외부보다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 육적 문화가 아니라 영적 상태에 놓여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문제이다. 암이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정복되지 않은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절로 무너지는 것처럼 죄 문제를 바로 다루지 못하면 수 많은 교육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이민자인 우리의 소망인 자녀들에게 이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는 교육이 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죄로 알 수 있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곧, 교육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가르침이 진리이다.(1:7) 교회생활하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적용해야만 한다. 정말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가고 있는가? 남이 안 보는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이다. 이것으로만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을 생활화하는 풍성한 지혜를 공급받는다. 천하 없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동원했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지한 자가 된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화 (edification)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는 진리의 영이며 교육의 영이며, 교화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을 믿지 않으면 요행의 영, 요술의 영으로 이상한 사람을 만들려는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있다. 이 세대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교육을 꿈꾸며 지혜를 구하자.

37. 허무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

구약 전도서의 계시를 묵상하노라면 허무의 토양 위에 세워진 복음과 교회를 볼 수 있다. 혹자는 전도서에 교회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지 모르나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인생의 허무를 노래한 전도서의 진한 흐름 속에서도 참 교회의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전도서는 주님의 교회를 증거하는가?

첫째, 인간 실상이 허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을 연구했다(1:13)고 할 정도로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사는 고통이고 허무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한다. 해 아래는 유익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관찰한 그의 결론이다. 그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맛본 자이기에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 그를 통해 성령이 죄아래 있는 세상의 실상을 보인 것이다. 죄로 인해 찾아온 사망이란 그 증상만이 아니라 실상이 점점 더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사망의 그림자를 보지만 장차 사망의 실상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락주의, 물질주의, 명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등등의 이즘(ism)은 하 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실상의 모습일 뿐이다. 솔로몬은 미친것과 미련한 것을 다 연구했다고 하지 않는가? 그 결론도 허무였다. 참된 유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 아래의 모든 수고이다. 그러고 보면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허무의 토양 위에 씨를 심으신 것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구원은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아는 영적 허무를 통해 완성으로 나간다. 그래서 성령의 빛 아래서 인생허무의 실상을 아는 일은 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제이다.

둘째, 이 허무의 토양 위에 복음의 씨가 심기워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다. 전도자는 일의 결국을 논하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와 경외와 그의 말씀에 순종함이 인생 본분이라고 한다. (전 12:12-14)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임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은 무엇인가? 전도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의 말씀의 순종이다. 경외신앙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골자라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경외심과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야한다는 말이다. 솔로몬은 구약시대 인물이지만 바로 그 세계를 본 것 같다. 해 위에 있는 천상교회의 실상이 허무의 세상에서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그 날을 쳐다 본 것이다. 허무의 토양 속에 심긴 주의 말씀은 반드시 천국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속에 보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 교회가 이를 몫이다.

38. 빛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각 장마다 먼저 사건을 보인 후 곧이어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낸다. 8 장 초두에 나온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 지 않고 용서하시는 주님은 그 사건과 관련시켜 말씀하기를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보이셨다. 그리스도가 빛이란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째, 그는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이다. 만물 창조 시, 처음 만들어진 그 빛은 해달별의 빛과 구분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 빛은 만유의 근본이다. 모세가 그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그 빛의 실체가 누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빛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이다. 복음의 빛아래서 그 실체가 밝혀졌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모든 생물, 무생물, 인간의 도덕과 윤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빛이시다. 더욱이 그는 현대인들의 모든 삶의 기반으로 삼은 과학의 뿌리며 기초이며 중심인 그 빛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음을 분명히 증거한다. (골 1:16) 그렇다면 한 송이 장미가 꽃을 피우는 것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고, 어제 일어난 작은 교통사고도 그의 빛 아래서 해석 되어야 하며, 불경기 파도로 감원바람이 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중심도 그리스도임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그는 만유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생명의 빛이시다.(요 8:12) 여기 생명이란 말이 중요하다. 죽음은 어둠과 절망을 남기지만 생명은 밝음과 소망을 일으킨다. 생물의 생명이 각기 다르지만 그들의 다양한 활동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되는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제쳐 놓은 생명 활동이란 무가치하다. 오직 그 만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빛은 자기 백성의 죄를 처리하셨다. 현장에서 붙들린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절망적 정죄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빛, 예수가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선포는 생명의 빛이 한 개인에게 비추어 치료하는 순간이었다. 지금도 그 풍성한 치료의 강수는 계속 흐른다. 누구든지 그에게 믿음으로 가기만하면 이 치료를 체험한다. 생명의 빛 안에 거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빛이기에 그 빛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는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엡 4:)는 바울의 깨우침은 생명 빛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 성품의 드러남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빛인 신자가 사모하는 열매이다. 진정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다. 아니, 예수만이 나의 빛이시다.

39. 내 말은 영이요

오병이어로 오천 명 이상의 군중을 위해 베푼 광야의 식탁은 육신의 배부름을 가리키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같은 믿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 사건은 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데 있었다. 육신의 배부름에서 영혼의 배부름으로, 기적 주의 현실주의적 탐욕에서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눈길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한 자극적인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셨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야 한다는 비유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주장으로 발전해 나갔다. 영은 생명이지만 육은 죽음이라는 것이다.

첫째, 주의 말씀이 영이다. 영(פּוּנְיָמָה)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님은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자기 백성이 산다고 하신다. (신 8:3, 마 4:4)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고 (딤후 3:16), 성령의 검이고(엡 6:17), 영혼의 빛과 등불이고(시 119:105), 그리고 물(눅 24:32), 방망이 등으로 비유했다. 그 말은 죄인의 영혼에 말씀과 성령이 일할 때 거듭나고, 갓난아이 성장에 필요한 모유처럼 그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그의 영혼에 공급되 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through), 말씀 안에서(in), 말씀과 함께(with) 일하신다는 뜻이다. 고넬료 가정에 초대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와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일하신 것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 (행 10:44,11:15).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일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생명이 태어나며 소생하며, 눈을 뜨게 하여 회개케 하고, 믿게 하고, 연합케 하며 풍성하게 하며 심판 날에 영생의 부활을 하게한다. 이렇게 성경을 받는 것은 현재 의 육신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을 결정짓는 사건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켜 주는 영이시라 하여 주의 영 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으며 그 안에서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간다고 말한바 있다.(고후 3:17-18) 여기 나온 주는 높아지신 신분의 주님을 가리킨다. 갈릴리나 벳새다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일하시던 주님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온 세상 개인 개인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영혼 을 주관하시는 동일한 주님으로 일하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영이란 성령을 가리킨다. 주님을 성령과 동일시 하실 정도로 성령 안에 친히 일하시는 주 님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말씀이 주님이며, 말씀이 성령도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영이고 생명이란 결론에 이른다.

성경이 영이요 성경만이 참 유익이라는 주님의 주장을 받는 자만이 생명의 풍성한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성경과 연합하는 일에 총력을 쏟는 자가 진정 복된 자이다. (시 1:3) 그 이유는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40. 영생의 샘물

백두산 보다 더 높은 하늘 불디 마운틴을 가는 길 중에 아이스 하우스(Ice house)계곡을 따라가면 산 밑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만난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샘물을 즐긴다. 신자가 항상 찾아야 하는 영생의 샘물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 샘물로 나아가 마시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참 만족을 알게 된다.(요 6:33) 그 샘물이 무엇이며 그 샘물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첫째, 영생의 샘물은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특징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말씀, 빛, 생명, 생수, 참 만나.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세상의 빛 등으로 표현된 것을 한 마디로 영생샘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를 물마시듯이 영접하면 즉각 수가성 여인처럼 그 마음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한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다. 요한의 또 다른 계시인 계시록에 보여진 천당을 묘사한 상징주의의 껍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벗겨진다.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사실 그리스도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보면 우리가 들어갈 천당은 영생으로 충만한 세계가 될 것이다. 세상 물은 마시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한 샘물이지만 그리스도는 한번 모시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 만이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신자의 유일한 충족이다.

그 다음에 영생의 샘물은 성경이다. 그리스도가 영생 샘물이란 말로 만족하지 않고 왜 성경을 영생 샘물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요한이 받은 계시의 특징이다. 38 년 된 병자를 치료한 기적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이려는 하나님 뜻은 성경이 영생이란 사실이다.(요 5:39, 요 6:) 이것은 시간 공간상 그리스도를 모든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만이 구원의 책이며 성경이 없는 구원은 영생이 없는 구원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주님의 방법이다. 성경을 상고할 때 영생을 얻는 구약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음으로서 단순한 기대로 끝난 것뿐이지 그 진수에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주님의 주장이다. 막연한 민가 전설에 목을 멘 병자들의 기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분과 연합됨을 알 때 생명의 샘물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성경”이라는 주님의 공식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영생의 샘물을 내 것으로 만들까? 성경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수 없이 들은 것이라 해서 지나칠 일이 아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한다. 물가에 가다보면 물을 알고 마시는 기회를 갖듯이 성경을 자주 읽을 때 친숙해 지고 그 말씀의 힘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와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작은 일에 그것을 대입시켜 순종하면 성경이 진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41. 절대 예수신앙

일전에 모 글을 읽다가 오직 예수의 신앙이 점점 모호하게 되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있었다. 여러 신뢰 대상 중 하나로 전락된 느낌을 가졌기 때문이다. 절대 예수신앙은 모든 삶의 가치와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에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예수만을 믿는 신앙을 양보하자는 생각은 이 시대의 마귀의 유혹이다. 어떤 영향인가?

첫째, 종교 다원주의가 미친 결과이다. 종교다원주의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모하멧 역시 그 시대의 정황에 맞는 구세주이라는 사상이다. 고로 아무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예수만을 믿어 구원받는 가르침은 너무 이기적이며 독선적이란 해석이다. 일전에 한 존경받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어떤 종교이든지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는 식으로 대답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이것은 주님의 명백한 주장이신 “아무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요 14:6)”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에 위배가 된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뉴에이지 사상의 영향이다. 뉴 에이지 사상은 한 마디로 너 자신이 신이고 신의 잠재력이 네 속에 들어있으니까 자기를 잘 다스리면 신적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삶의 주체가 예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란 것이다. 배후 사상과 상관없이 거리낌이

요가를 거리낌 없이 쉽게 수용하는 것은 이 사상에 감염된 증거이다. 성경에 신자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성령 받은 신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한다.(요 1:12-13, 벧후 1:4)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되는 일임을 전제로 할 것으로 예수를 떠나 자기가 신이 되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성경의 예수 절대 신앙을 믿지 않는 신자가 타락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아주의자가 되어 세상의 극도의 인본주의 흐름을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과 같다.

셋째, 포스트모던 사상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극도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어떤 대안 없이 주변의 모든 권위를 끌어내리는 사상이다. 일종의 극도의 파괴주의이다. 르네상스 운동처럼 어떤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처럼 보이나 더 큰 혼란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사상이다. 기준이 없는 균형이란 없기 때문이다. 예수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행 4:12)는 사도의 신앙이 이 문제에 쐈기를 박는다. 균형을 잃을 때 찾아오는 혼란은 더 심각하다. 절대 예수신앙을 지켜나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캄캄한 밤에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 처럼, 신자의 가슴에 너무 뿌리 내려 예수 상대신앙의 증거의 열매가 여기 저기에 나타남을 보는 현실에서도 눈물을 뿌리며 예수 절대 신앙의 씨를 심어 풍성한 생명을 온 세상에 증거하자.

42. 캄보디아 선교 (1)

거기 있는 동안 학생들 중 경조사가 있었다. 하나는 웨딩소식이다. 와나라는 여학생이 싱가포르 남자와 약혼하고 결혼한 일이다. 일년 전 그곳에 갔을 때 내 오른 발 엄지발톱이 속을 파고들어 손톱깎이를 빌리려하자 선뜻 자신의 것을 가져와 깎아 주겠다고 친절을 베푼 일 때문에 리브가처럼 자상한 마음을 가진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현실화된 것이다. 눈망울도 크고 성격도 활달하고 자상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나 싱가포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캄보디아의 관광명소인 캄뵙사옴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비원이란 한인식당에 교수들을 초대하여 대접했다. 주님이 귀하게 쓰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했다.

또 다른 소식은 설리란 필리핀 여학생이 본국에 계신 어머니의 병문안 가서 임종까지 보고 온 일이다. 알고보니 돈 200 불이 없어 위독한 엄마에게 가보지 못하다가 어떤 교수님의 배려로 가서 어머니에게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고 마지막을 지켜 보았다는 감동된 일이다. 미국으로 떠나는 날 돌아온 그녀를 만나 위로했다. 어디서나 슬픔의 일은 계속되는가 보다.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 사는 것만이 복됨을 다시 느낀다. 죽은 사자 보다 산 개가 더 낫다는 전도자의 잠언은 살아있을 때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권면일 것이다. 먹으나 마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의 깨달음과 통하는 말씀이다.

또 다른 소식은 놈 네임이란 학생의 아내가 아들을 순산한 일이다. 탁리 원장이 운영하는 제일 병원에 가서 정상 분만하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이다. 여전히 김현목사님의 가정이 학생들을 위해 숨은 사랑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다. 장질부사, 이질, 뎅기열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각 병원응급실로 옮겨 치료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항상 빈곤한 나라의 열대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병에서 벗어 날 수 있어 일단 안심이다. 만일 나 같은 사람에게 뎅기 열이 생기면 정말 위험수준이 될 것이다. 뎅기열이란 세계에서 가장 위급한 질병 곧, 말라리아, 신종플루 그리고 에이즈 같은 수준급의 치명적 질병 중 하나이다. 모기가 옮기는 뎅기열은 100 도 이상 되는 고온이 계속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병명을 조사하다가 죽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뎅기열을 보면 즉시 알아 순서대로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한다. 마켈과 식당에 파리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 마치 먼 옛날 우리 한국의 동대문시장, 수산시장, 영등포 시장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곳에는 호수 물에 목욕하고 빨래하고 그릇 씻고 밥물로 쓰고 또 거기에 화장실 처럼 온갖 오물을 버린다고 한다. 식수문제가 어서 해결되어야만 이들의 평균연령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과거의 43 세가 74 세로 났 것은 감사한 일이다.

슬픔과 웃음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섭리는 곤고와 형통을 병형케 하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겸손히 붙잡게 하시는

것이리라. 가진 돈이 별로 없지만 각각 20 불씩을 선물하면서 그들의
장래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원했다.

43. 캄보디아 선교 (2)

50 여명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어났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갈 때마다 느끼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일어나는 문제는 한국서도 일어나고 세계의 정상이란 미국 역시 그 문제는 계속 일어난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같은 것이다.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흐름이 그 저변에 계속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흐름은 이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누구든지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오기만하면 살아난다. 마치 에스겔의 강수의 환상에 일어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재현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 받은 나는 다시 한번 그 위대함과 복스러움을 감사한다. 주여 나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 하소서, 캄보디아가 성경화 되게 하소서.

오랜 만에 찬송를 부를 때 감동을 체험했다. 그동안 건강 때문에 항상 불편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찬송을 마음에 감동되도록 부르지 못하는 일이었다. 학교 채플은 500 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으로 천장이 공명이 잘되었다. 말하면 울려서 뒤에 앉으면 무슨 말인지 잘 분별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매일 오후 시간만 되면 중국 여학생 징이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한다. 중국 예술학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작은 체구에 부르는 노래가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뛰어난 은사가 있었다. 내가 애창하는 404 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부를 때 진공이 잘되어서인지 오랜만에 흡족하게 불렀다. 연거퍼 345 장 김활란

박사의 찬송, 캄캄한 밤 사나운을 부르니 울음과 웃음이 짬뽕이 되는 감동된 시간을 가졌다. 정말 내가 많이 건강해 졌다는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일년 전만 하더라도 엄마가 보고 싶다하여 자주 울었던 여린 마음을 가진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영어도 꽤 많이 늘었고 안정이 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꾸도록 권면하고 칭찬해 주니 너무 좋아했다. 새벽시간마다 그의 피아노에 맞춰 찬송하니 은혜가 되었다.

학생들의 영어가 많이 늘었다.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 인도 그리고 크메르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영어이다. 영어를 잘하면 얼마든지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집중하는 커리큘럼이 진행되어 매년 마다 영어실력이 달라짐을 느낀다. 말도 담대히 잘하고 열심이다. 그래서 신학부는 영어수업이 잘 진행되었다. 인도에서 온 학생들과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입학하여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다. 내가 맡은 과목을 하이 레벨로 올려 놓고 진행하였는데 그것을 소화하려는 노력과 마음이 너무 대견스러웠다. 30분전에 미리 준비하러 가면 벌써 10분 전에 와 앉는다. 8시부터 11시까지 50분씩 3시간을 강의하면서 그들과 함께 주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글로만 사역하는 일이 많았기에 걱정을 했는데 부족을 메꾸기 위해 학생들로 발표를 시키고 평가하는 식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나의 건강과 실력에 보조를 맞춰 진행하였다. 그들이 거기에 잘 응하여 그 목표에 이를 수 있었다. 감사한 것은 내 전공이 아닌 해석학이지만 설교와 통하는 바가 많아 응락을 했는데 준비하는

중 나의 해석원리를 정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 중심한 성경해석학으로 포이츠레스 교수의 하나님 중심한 해석학과 같은 맥락이다. 그것을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어 감사했다.

44. 캄보디아 선교 (3)

4 년 전 처음 캄보디아를 갔을 때의 메콩강 주변은 파리 때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지저분한 빨간 흙탕물이란 인상만 남았는데 이번에 갔더니 많이 변화되어 있었다. 변화가에 있는 한 식당에서 미국식 저녁을 먹으면서 바라 본 밤거리는 마치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라라 식의 유럽 풍경을 생각할 정도였다. 원래 이 나라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건설된 건축양식이 유럽풍이 많았다. 간지 2 주 만에 귀국하는 이근철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식사했는데 왕궁 앞에 있는 메콩강 주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불과 1-2 년 사이란다. 거기서 월남의 호치명시까지 버스로 6 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한다. 그 강은 위로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남쪽의 월남과 연결된 메콩강 지류로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관광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한다. 문맹이 70%로 가난한 나라, 지저분한 나라, 불교의 나라, 그리고 킬링필드의 아픔을 가진 나라인 캄보디아에 말씀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강수가 흘러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속히 오려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경건의 본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유유히 흐르는 메콩강의 물결처럼 복음의 생수의 강이 그들의 마음에 흘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즐거워하며 동남아시아의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꿈울 꾸어 보았다.

귀국 하루 전에 툽툽이(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이발소에 갔다. 미국에서 15 불 주어야 깎을 수 있는 것을 1 불에 깎았다. 원래는 75 세트 인데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1 불을 받았다. 같이 간 기스나도 1 불, 마사지로 1 불을 주었다. 미용실을 같이 하는 곳으로 미용은 5 불 남자 미용은 2 불이란다. 정말 달러의 힘이 우세한 것을 느꼈다. 자동차 수리도 150 불 정도의 일이 5 불이면 해결되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1000 불이면 외국인들이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한 달에 50 불 혹은 100 불 정도로 산다고 한다. 다음에 오면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학교가 있는 곳은 프놈펜 국제 공항에서 15 분정도 되는 거리에 삼층 건물로 잘 지어져 있다. 학교 동네에 시장이 들어서 있어 학교식사 재료를 사기위하여 교수나 학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작년에는 피사이와 함께 그 시장 안을 걸어 다니면서 살펴보니 꽤 먹을 만한 재료들이 많이 눈에 띄었었다. 과거 영등포시장과 수산시장을 생각하게 했었다. 쌀도 팔고 코코넛도 깎아서 팔고 생선도 팔고 돼지고기 오리알 그리고 열대 과일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바나나도 여기처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애플 바나나이고 수박도 작은 것이고, 사과, 리찌, 파파야, 듀리안 등을 팔았다. 마지막 날이라하여 유목사님 내외 분이 과일의 황제라는 듀리안과 여왕이란 망고스텐을 가져와 맛있게 먹었다. 여기서도 듀리안은 간혹 먹어 그 맛을 아는데 그곳의 맛은 환상적이었다. 체철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유목사님 내외분의 따스한 섬김으로 모기 한번 물리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왔다.

선배 선교사들의 사랑으로 용기가 솟아난다. 9 월에 다시 올 때에는 나도 무엇인가 섬겨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주 영광을 위하여 장수와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다.

가기 한 달 전부터 피부 알러지가 생겨 요란을 떨다가 완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온갖 약을 준비하고 갔는데 더운 지역에서 땀이 나니까 더 가려웠다. 혈압약을 빼 먹어서 구하기가 힘이 들었다. 마침 동역자 에스라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원 원장이라서 같은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나 겨우 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로 피부 알러지도 한약을 2 주 먹고 완치할 수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5. 캄보디아 선교 (4)

배 타고 강 건너 어떤 마을에 전도하러 가는 중 논바닥에서 지금초(地錦草)를 발견했다. 물을 피해 마른 땅을 밟고 가려고 양골이 학생의 손을 잡고 건너는 중 발견한 것이다. 지금초란 모든 균과 곰팡이를 죽이고 심지어 암 세포까지 골라 죽인다는 정보를 알고 필요할 때 부지런히 이용하여 도움을 받은 풀로 더운 지방에서만 나는 약초이다. 한의학을 시작한 동기가 자가 치료를 위한 것인데 많이 회복되자, 욕심이 생겨 남을 도울 명목으로 1년 반이나 다녔다. 그 때 본초학이라 하여 약초 300 여종을 외우고 시험 치는 일로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는 터라 어디를 가든 약초 찾는 습관이 생겼다. 비단풀이 거기에 나는 것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알아야 사용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두 일의 열쇠인데 그를 모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미 우리 신학생들이 토요일과 주일 오후마다 찾아가 아이들에게 울동도 가르치고 성경도 암송시킨다. 3 가정을 보게 했다. 50 가구 모여 사는 동네에 믿는 사람은 단지 3 사람이란다. 그들을 만나 전도할 기회를 찾았다. 한 분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의 아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아내와 손녀는 야자를 부수어 코코넛을 채취하고 있었다. 매티유 학생의 통역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확인하고 영접시키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선뜻 마음을 내 주지 않는 그들을 보며 과거 한국과 미국에서 전도하던 생각이 떠올랐다. 불교 나라라 마음이 착하여 쉽게

전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다. 다른 두 가정도 모두 그러했다. 나는 밥값도 못했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다. 폴 포트 정권에 120 만이 학살을 당해서 마음을 잘 주지 않는 말이 일리가 있었다. 지혜로운 전도 전략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할 필요성을 느꼈다. 여전히 물품공세보다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다. 다른 마을은 한국 선교사 부부가 은혜 받고 무작정 캄보디아에 와 음악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전도하는 곳이다. 40 여명 모여 그림을 그리며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가르쳤다. 학생들이 거의 다 맨발로 나와 열심히 말씀을 들었다. 머리와 옷을 보니 세수, 세탁 한번 안한 사람처럼 때가 끼었으나 눈동자만큼은 새 것을 사모하는 듯 반짝거렸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어 이 귀신의 나라에 일곱 영이신 성령을 보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이 드러난 것이다. 주여, 성령의 단비를 이 땅에 부으소서. 지교회 하나 설립하려면 당장 땅 사는데 10000 불 교회 건물은 5000 여불 든다 한다. 문제는 이들을 계속 관리할 교역자 지원이다. 한 달에 생활비만 150 불 생각해야하니 그것도 만만찮은 프로젝트이었다.

그 다음 전도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전하는 곳이었다. 한 중국 목사님의 가정에 도착한 중국신학생들은 그의 인도로 마켓 전도를 간다는 것이다. 용달차 같은 오토바이가 끄는 뚝뚝이를 타고 시장 속에 들어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랜만에 걸어 운동이 부족한 터라 뻣뻣한 다리로 그곳을 한 2 시간가량 헤맸다. 중국 사람들을 골라 전도하는 일로, 그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을 만나 수소문하여 중국 사람을 찾아 전도했다. 사탕수수를 갈아 단물을 파는

한 여자 분은 매우 감사하며 복음을 잘 받았다. 얼굴이 무척 밝았고 이름도 적었다. 과거에 내가 하는 방식대로 전도하자 땀을 좀 흘렸어도 마음이 너무 좋았다. 무엇보다 그냥 지나치는 크메르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놓친 아쉬움을 가지면서 속히 전도전략을 세울 필요성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3 종류의 전도전략을 구상하면서 하나님이지혜주시기를 구하였다. 복음의 지금초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이 나라에 성령의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46. 캄보디아 선교 (5)

선교여행도 여행이니 만치 많은 것을 보게 하고 새로운 정보를 알게 하고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덜어버리는 여유를 가짐으로 홀가분하게 했다. 갈 때 14 시간, 올 때 12 시간을 한국에 체류하며 보지 못한 내 조국의 발전을 보니 신나는 일이다. 갈 때는 여동생 부부의 배려로 서재운 목사님의 목회지인 의정부 제일 교회에서 잠시 교제를 나누고 백화점처럼 잘 지은 교회의 옥상에 자리 잡은 게스트 룸에서 쉬었다. 내가 이런 곳에서 대접을 받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으로 황송했다. 조국을 떠난 지도 거의 30 년이 다 되어온다. 그 때만하더라도 교회가 돈이 없이 버둥거리고 유신정권, 광주사태 등이 휘몰아친 정국이라서 답답했는데 지금은 위치가 달라진 것이 공항 건물부터 그 증거가 보인다. 캄보디아에서도 영어 못지않게 한국어를 배우려 하고 한국에 가서 돈 버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니 얼마나 그 위상이 높아 졌는가? 교회 건물도 보통 좋은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성경공부, 기도하는 일에 특심을 보이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올 생각을 갖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비행기 서비스가 너무 좋았다. 불편한 몸에 휠체어 서비스를 받으니 너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내가 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으나 들어가며 나오며 보안 검사받느라 벗고 짐을 열고 점검받는 일이 너무 번거로워 혹시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도움을 받았는데 너무 대접이 융숭했다. 짬밥을 비행기 속에서 먹을

정도로 너무 다양해 진 서비스를 보았다. 서비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돌아올 때 12 시간 호텔에서 잠깐 쉴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점심도 공짜다. 마침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황정식 목사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침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가셨다. 항상 조용하고 묵직하고 인내심이 많고 진실한 그의 인격을 대할 때마다 포근함을 느낀다. 혼란의 때에 성문교회를 목회하며 오늘의 열매를 나타낸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군대 제대하자마자 처음 교육전도사로 부름 받아 갔을 때 처음 만나 그의 자취방에서 손수 라면을 끓여 대접하시던 따스한 섬김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강목사님은 기도의 경지를 따를 수 없는 분이라면 황목사님은 견디는 경지를 따를 수가 없는 분으로 생각할 정도이다. 나도 캄보디아 사역에서 그들을 견디며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섬길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내 또래들은 큰 교회 목회하고 신학교 총장하고 야단인데 나는 왜 이런 자리에 있는가? 나의 중풍 후유증 치료는 이제 막바지에 달했나?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나? 지금이라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는데 건강으로 제약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답답한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활동에 좀 느릴 뿐 지장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번에는 온종일 6 시간 강의했는데도 건강하니 정말 많이 좋아진 것이 확실하다. 다음번에는 한국에 들러 적절한 강의를 하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 목회의 설교, 성경 가르치는 일에 착념하는 일, 크리스찬 신문사에 가정예배 설교를

격월로 내는 일도 있지만 그동안 훈련된 나의 신학과 나의 신앙을 정리하여 온 세계에 나가 교회를 견고하려는 소원이 있다. 브니엘 신앙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다. 디모데전후서, 호세아서, 설교와 그리고 성경해석학은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한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온 세계에 전하고 싶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47. 종의 만족

고난을 통해 고난을 이기며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는 일이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중 하나이다. 이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성실하게 성취됨을 보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42 장에 나타난 성령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로 꺾지 않는 긍휼의 사람으로 보인 것이 53 장에 고난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되었다. 이것을 이사야는 형통이라고 하였고 만족하였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가리킨다. 그 일이 완전했기에 성부를 만족하셨고 그에게 속한 씨들인 교회를 만족시키는 원천이되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11)

첫째, 스스로 만족하신 고난의 종은 누구인가? 어떤 이는 히스기야, 이사야 혹은 당대 경건한 선지자 중 하나로 지목하나 복음의 빛을 비추어 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 외에 다른 이가 아니다. 그 사용된 용어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5,10)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은 700 년후 종말 시대에 오실 그에게 초점을 맞추었다.(행 8:31 사 53:6) 영광의 종이 되기 전에 그는 먼저 고난의 종이 도셔야만하셨기 때문이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구속의 길, 진리, 생명되시기에 모든 것은 반드시 그를 통해야만한다.(빌 2:9-11))

둘째, 그 종은 무엇으로 만족하셨나? 고난의 극치인 그의 죽음이 성부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그 종만이 유일한 속건제물이 되신다.(사 53:10) 적은 죄 하나가 생각 날 때 드리는 제물처럼 그의 죽음은 지극히 작은 죄책 하나까지도 다 처리하신 넉넉한 효력을 가진다. 그가 마른 땅에 나온 뿌리처럼 모양도, 풍채도 없이 오셨고 사람들은 싫어 버린 바되는 치욕을 당한 일 모두가 대속물로서의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의 죽음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여 놀랐다가 자기를 대속하신 고난임을 알게 되자, 도리어 놀라게 되는 독특한 죽음이었다. 이 길만이 자기 백성의 죄, 죄책, 형벌,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모두 처리할 수 있기에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이다. 서슬이 퍼런 성부의 의의 칼날을 친히 받으심으로 단번에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넉넉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다.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상의 절규는 완성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다. 이사야는 종이 행한 절대 고난, 절대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말함으로 그 고난의 영원한 효력을 선포한다. 성자는 성부의 만족을 아셨던 것이다. 그 만족이 그 안에 있는 씨들 곧, 교회의 만족을 가져왔다. 실제로 바울은 약할 때도 만족하고 풍부에서나 빈궁에서나 항상 만족한다고 확신한 것은 그 뿌리를 종의 만족에 두었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면 무엇이 종이 가진 만족인가? 종의 만족이 교회의 만족을 안겨준 그 상태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의의 표준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난 사실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만족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샘솟는 기쁨과 시공간을 뛰어 넘는 초자연적 즐거움을 누린다. 종의 만족이 사막을 오아시스로, 곤비한 땅에 쉬게하는 큰 바위의 그늘이 되었기 때문이다.

욕구불만으로 채워진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만족으로 돌아가야한다. 홍해를 건널 때 기뻐한 이스라엘이 3 일간의 물 없는 고통과 마라의 쓴물로 원망한 것처럼 온갖 불안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때 우리는 종의 만족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려야한다. 종의 만족으로 채워진 마음만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엘림의 일반은총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와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참 만족을 체험케 하시기에 충분하다.

48. 신자의 책임감

선교라하여 좋은 일들만 있는것이 아니다. 책임감 문제는 여기서도 답답함으로 나타난다. 무엇을 하라는 지침을 주면 그대로 시행되어야하는데 이런 저런 변명과 핑계로 대응한다. 그때 변명은 거짓과 거의 통한다. 보고하라면 보고해야만 전체 흐름이 잘 굴러갈 터인데 그 일에 많은 핑크가 생겨 속상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나는 회개에 관한 진리를 생각한다. 회개는 언제나 책임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참 회개한 사람은 책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만일 이 책임감이 상실된 삶을 산다면 그는 자신의 회개를 점검해야만한다. 왜냐 그의 회개는 거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편의 강도를 보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자기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예수여 당신이 저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강한 믿음이 생긴 것이다. 회개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타나야만 생명을 경험한다. 다시 말하면 회개란 책임을 지려는 강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 루시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맡은 일에 성실하려는 책임감으로 표현된다. 그렇다고 책임감이 무슨 공로가 되어 구원을 얻는데 보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앞에 순종하는 책임감으로 표현된다. 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진실된

그릇 위에 받으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감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인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 적은 것 하나라도 책임지려는 진실의 마음으로 은혜다워진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 정해진 표준에 이르기 위하여 참된 노력을 요구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모두 책임감과 통하는 일이다. 책임이 결여된 마음에는 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 역사, 수고 그리고 인내는 그 바탕에 책임지려는 진실된 태도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란 신분을 확신해야하고 동시에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신분에 걸맞는 자리로 나가려 해야한다. 강한 노력 강한 책임감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 곧 모든 일에 책임의 사람이다. 자기의 경건생활뿐 아니라 이웃의 구원까지 책임지고 가슴에 품고사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지는 사람이 적은 개인과 교회는 혼돈과 어두움이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성령은 책임의 영이심으로 성령받은 사람은 책임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다. 말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심판대 앞에 계산할 자임을 알고 진실되이 살아간다. 이 세대의 교회가 그렇게 어두운 것은 이 책임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는 개혁신앙은 바로 이 길을 걷는 자로서 장차 주 앞에 설 때 인정을 받으려는 강한 책임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만일 이 책임감이 약해졌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 큰

타락의 자락에 떨어져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앞에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발걸음이 있을 때 소망은 시작되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책임감으로 나타나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아하는 진실된 사모심으로 나가야한다.

49. 히스기야의 경건

히스기야 이름은 “여호와와는 능력이시다(The Lord is strength)”라는 뜻이다. 그는 약한 아버지 아하스 아래 태어나 25 세에 왕이 되고 26 년간 유다를 다스리다가 악한 아들 므낫세에게 나라를 물려주었다. 악한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경건의 특출함을 보인 왕이다. 열왕기하나 역대하에 나타난 그에 관한 기록을 보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파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여호와에 대한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는 등, 경건한 왕의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 그의 경건은 개인적인 삶에도 나타났지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한 몫을 차지했다. 그의 경건은 어떻게 표현되었나?

첫째,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나타났다. 앗수르 왕의 대사, 랍사개의 조롱의 말을 듣고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심을 확신하고 한 행위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왕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 죽게될 것을 예언한다. 후에 18 만 5 천이 하루 밤에 죽임을 당하고 그는 고국에 돌아가 두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다. 경건은 참 권위를 붙들 때 나타난다.

둘째,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나타났다. 또 그의 경건은 개인의 기도응답을 확신함과 실행으로 나타났다. 그는 랍사개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퍼놓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인격적 교제를

통해 간구를 드렸다. 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겸손히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다.(마 6:6)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런 진실하신 기도를 기다리신 것이다. 경건은 진실한 기도의 세계를 통하여 빛어진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로 나타났다. 훗날 죽을 날을 선고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진실되이 간구했다. 벽을 한한 그의 비장한 간구는 응답되어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고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다. 경건은 진실된 마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경건은 나라를 위기에 구했고 유다 말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경건한 그릇, 히스기야를 사용하셨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이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영적으로 혼탁한 우리 시대에 경건의 생명이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히스기야의 경건은 하나의 중요한 본이다. 궁핍이든 부요, 어디든지 잘 처세하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경건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얻어진다.

50. 신령한 싸움

신령한 자란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가리킨다.(고전 3:1) 성령을 모신 신자는 모두 신령한 사람의 반열에 이미 들어와 있다. 삶의 질과 열매는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만으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인 영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자가 되었기에 신령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한다. 어떤 싸움인가?

첫째, 그 싸움은 육체 소욕과의 싸움이다. 거듭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과 형벌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모두 십자가 위에서 처단되었다 할지라도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육체 소욕의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가나안 칠 족속처럼 우리 속에서 활동하여 기회만 되면 우리로 죄를 짓도록 이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자기의 선한 의욕을 순간에 무너뜨리는 육체의 소욕을 바라보고 “오호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한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다. 이것은 육체가 피곤하다는 동정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들 속의 육체의 소욕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흉이다. 갈라다아 교우들을 권면할 때 이신칭의의 진리를 강조한 사도는 마침내 거짓 교훈을 좋아하는 부패성을 죽이는 것이 우리 싸움의 목표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욕은 마귀와 세상보다 더 골치아픈 원수인 이유가 우리 속에 그 힘을 계속

행사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정과 욕심을 차단한 것이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에 그 권세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믿음으로 그것과 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둘째, 그 싸움은 소극적인 요구에서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타난 것이 성령을 좇는 것이다. 믿음이나 행함이나는 성령이나 육체냐의 싸움으로 집약된다. 신령한 싸움의 최접전지는 바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좇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좇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고 명한다. 만일 이 싸움에 실패하면 당연히 육신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경고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성령 좇는 일에 성실하라고 강권한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주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의 열매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요약된다. (롬 14:17) 아무리 시대 풍조가 갈려도 성령을 좇는 일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 우리 밖에 그리고 우리 관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성령의 자상한 인도로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이 신령한 싸움에 성실하게 임하자.

51. 장막절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구약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이다.(행 7:38) 이스라엘에 주어진 수 많은 상징주의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으로 성취된다. 안식일, 안식년, 제사 제도 그리고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 장막절은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가? 요한은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한다.(요 7:1-53)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장막이시다. 장막절은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구름 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의복과 신발의 보호를 받은 것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망대요(시 61:3), 나의 장막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다. 다윗은 시편 18:2 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기를 8 중 비유를 통해 찬양했다. 그리스도는 장막절의 완성으로서 자신이 모든 영혼을 모든 악과 죄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38 년 병자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심으로 증거하셨다.(23)“ 그만이 자기 백성의 영원한 장막이 되신다. 모세의 고백대로 영원한 장막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정 위치를 찾은 자이다. 그는 화살같고 안개같은 세월 속에 70, 80 을 살면서 아침마다 그의 인자의 장막 안에서 만족하였다.(시 90:14)

둘째,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일체가 되시며 성자는 성부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29 절의 “그에게서 났고”라는 말은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

분이심을 주목하게한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뜻을 모두 순종하고 이루어 드려 성령을 통해 자신의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날마다 공급하신다. 르비딤의 반석을 향하여 네가 설 때에 지팡이로 치라하신 점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율법을 범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 곧, 침을 당하심으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셋째, 그리스도는 르비딤의 생수이시다. 또 장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번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다. 이 물은 광야생활에 두번이나 이슈가 생길 정도로 그들에게 중요하였다. 그 물은 반석에서 나왔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해석한 것은(고전 10:4) 구약 교회도 그리스도에게로서 나오는 물로 육신의 갈증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연합될 때 더 고상하고 풍성한 성령의 생수를 받는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장막절의 반석의 물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세례이고 성령이시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성령이 교회에 영원히 내주하심은 그리스도가 구속을 모두 이루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다. 장막절은 성령의 강수로 완성된 것이다.

52. 복음의 즐거움

복음은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는 복음인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이 기쁨을 안겨준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기쁨이었다.

첫째, 아브라함은 주전 2200 년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뻐하였다.(요 8:56) 그는 이스라엘의 작은 땅에서 먼 후날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즐거워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복음의 기쁨이 그에게 임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일하심 때문 이다.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자손이란 주장은 내용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까닭은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복음의 실체를 대적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기쁨을 맛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손이었음이 드러났다. 도리어 천대 받은 사람들 곧, 심령이 가난함을 가진 실로암 소경이나 삭개오 그리고 수가성 여인같은 사람들이 경험한 은혜가 되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기쁨은 임하게 되어있다.

둘째, 다윗 역시, 주전 1200 년전 사람인 데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잘 알고 자신에게 바로 적용할 때 그 죄 사함을 알고 기뻐하였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시편 64 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교묘한

위험을 당하는 중에서도 의인은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된 열매이다.(10)

셋째, 바울과 베드로 역시 이 기쁨이 있었다. 그들의 활동을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였다. 바울은 다메섹 회심 이후 그 복음의 기쁨을 알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미할 수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자기를 대적하든 안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즐거워했으며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할 수 있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또 베드로는 수많은 넘어짐을 당하였지만 마침내 복음에 사로잡혀 성령의 은혜로 이 유쾌한 소식을 전하였다. 그는 성령을 선물로 혹은 유쾌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했다. 나아가 흠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기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그들 속에 자리잡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보고 기뻐하였다.(벧전 1: 8) 아브라함과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즐거워했으나 그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즐거워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 알려 지고 맛보아지는 기쁨이란 점이 동질이다. 이 기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자.

53. 솟아나는 샘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주신 주님의 약속에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가 있다. 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셨다.

첫째, 이것은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가리킨다. 죄인이 먼저 받을 샘물의 은혜는 죄사함이다. 이것은 먼저일 뿐 아니라 구속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엡 1:7) 죄가 샘을 더럽혀 죽음을 가져왔고 생명의 통로를 모두 막았기 때문이다. 새물이 흘러나오는 영인의 마음은 죄책과 수치심과 권태로움 그리고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마음은 욕구에서 솟아나는 온갖 좋은 것을 솟구쳐 내어도 여전히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었다. 그 갈등의 원인을 아신 주님은 먼저 그의 죄를 지적 하시면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하셨다. 죄가 처리 되어야만 생수를 솟구 치심을 아신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의 고백 속에는 믿음을 포함한 것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 는 일을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분명한 것은 그가 죄사함을 받아 다는 사실이다. 죄를 인정함을 받지 않는 자의 행복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단번에 처리하셨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처리된 사실은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를 언제나 자유하게 한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워진 아담의 방법은 항상 불안하였으나 대신 죽은 짐승의 가죽 옷이 든든한 것처럼 어린양

예수의 죽음의 효능은 죄사함의 강수를 항상 솟구치어 낸다. 이 샘물로서 우리는 참 만족을 얻는다.

둘째,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의 생수이다. 죄사함으로 시작된 샘물은 강수로 터져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의 강수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 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크게 외치셨다. 요한은 이 강수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해석했다. 정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그 강수의 실상을 알게된다.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그리고 생수와같은 성령은 비유가 다를 뿐 모두 같은 은혜 곧 성령이 지배하는 현상인 성령충만을 가리킨다.

죄사함의 기본 은혜는 강수와 같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한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이끈다. 수가성 영인은 이 은혜를 동시에 체험하고 우물에 물동이를 던져 버리고 밖으로 달려가 이웃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여 와보라고 도전하였다. 넘치는 은혜의 물결이었다. 성령의 넘는 은혜는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전매특 허가 아니다. 누구든지 목말라 하고 그에게 가기만 하면 반드시 받는다. 이 강수를 마실 때 새해는 더 풍성해진다. 그 강수를 전심으로 구하자.

54. 아침의 묵상

“첫 단추를 바로 꿰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바로 시작할 까? 앞 선 신앙의 본들, 모세, 다윗, 그리고 사도들은 아침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었고 특히,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을 기도로 보내기에 익숙하셨다. 그러면 아침을 어 떻게 바로 보낼까? 말씀 묵상으로 시작함이 가장 복됨을 성경은 여러 모로 증거한다. 무엇을 묵상할까?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한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 자기 거처가 포 위되고 목숨이 위태로워 앞이 캄캄하였을 때 그는 궁핍로 대하시는 하나님 만이 자신 의 힘되심을 확신했다. 힘과 하나님은 구분될 수 없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전능성을 깊이 묵상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단순한 신뢰로 전능자의 품에 아이같이 안겨 하나님이 친히 구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또 아브라함도 약속의 성취가 더디고 현실이 따라 주지 않을 때 그는 무엇을 묵상했는가? 그는 엘 샤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를 믿어 마침내 약속을 받았다. 절망에서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였다. 하나님으로 오는 능력만 있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짐을 확신했고 마음을 그의 전능하심에 붙들어 매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관념에서 벗어나 실제의 힘되심 을 받아드리고 그에게 기도로 나가야한다. 할수 있으면 해 달라는 의심이 끼인 믿음에서 깨어나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크신 분이심을 현실에 받아드리기 위하여 첫

자리에 그를 생각하여야 한다. 그 때 우리는 커지고 큰 확신을 갖게 된다. 성령이 하시는 큰 확신은 바로 그의 전능하신 이름과 성품에 기대하심으로 일하신다. 새해에 우리는 전능자의 팔에 안겨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를 묵상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다. 아침에 그의 사랑을 생각하고 찬송했으며 그의 평생에 따른 풍성한 사랑을 묵상 했다.(시 59:16) 모세도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했다(시 90:14)고 한 것은 인생의 참 만족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이줄 알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부음이 무엇인가? 그의 사랑의 부음이다.(롬 5:5) 조건을 뛰어 넘어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초자연적 사랑을 묵상할 때 자연히 여유로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자연세계를 묵상할 때도 우리는 그의 사랑을 접하지만 특별한총인 성경을 접할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부터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어주신 그 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것을 맛본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사로 잡혀 자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구했다. 자신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주 앞에 제물로 열납되기를 원한 것이다.(시 19:14)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일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웅얼대며 실패없는 그 사랑의 강수를 마시자.

셋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묵상할 수 있다. 다윗은 아침에 그의 힘과 사랑으로 아침에 그의 진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요 17:17)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생각의 바탕인 그의 진실을 양심적으로 접할 때만 참 만족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해의 목자의 인도는 바로 그 진실의 상태일 것이다. 인간은 그냥 두면` 거짓되기에 의식 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의 원천인성경에 착념해야한다. 이것이 충족한 은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매일 만나는아침의 묵상을 이것으로 시작하자.

55. 예수님은 누구신가?

“독수리복음”이라 일컬리는 요한복음은 그의 신분에 관한 대답으로 채워져 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인자 같은 이”로 시작하였듯이 요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밝히기로 시작한다. 1 장에서 5 가지 신분을 직접 간접으로 증언한다.

첫째, 그는 만물의 근본인 로고스이다. 로고스란 만물의 근본을 가리키는 말로 인격자로 계시는 분을 말한다. 요한이 살던 당대의 필로의 철학에 나온 로고스는 무인격체이기에 요한이 증거하는 로고스와 근본이 다르다. 요한의 로고스는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 자신으로 창조자이시며 섭자이시며 그리고 구원자이다. 잠언에 나온 지혜이다.(잠 8:22-31) 모든 만물은 로고스를 근원으로 하고, 내용으로 하기에 로고스 중심할 때 만유는 그 의미를 가진다. 로고스를 알지못한 인간의 제반 활동은 허무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그 선지자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 속에 그 분은 신명기 18 장에 나온 그 선지자이다. 종말에 세울 절대 선지자인`그 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멸망하게 되는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증거는 성령이 오신 후 초대교회의 사도 들의 증거와 같다.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구원의 의존자이다. 그 선지자의 인도를 따름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셋째, 그는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란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신약 용어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부으심을 받은 직분 곧, 왕,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가 메시아의 실체이시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개인에게 알려져 믿은바 되신 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본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외형적 영광으로 오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대망하였으나 성경은 처음부터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실 분으로 겸손한 종으로 오신것이다. 그러므로 겸손의 도를 가는 자만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그는 성령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물로 세례를 주던 요한의 증거대로 성령으로 세례주시는 분인 그는 죄인을 살게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성령이 오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게하시고 거룩케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끄신다. 그가 성령을 부어주셔야 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오순절 성령세례로 부어진 교회의 영은 주님의 영이시다. 그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높으신 신분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무엇보다 그는 누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성령세례를 구원받을 자기 백성에게 직접 베푸시는 분이다.

넷째, 그는 중보자로 오셨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처럼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 하늘 보화가 아래로 임하여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지이시다. 이런 신령한 교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론만 가능해진다. 나dana엘에 약속한 더 크과 놀라운고
풍성한 천상의 은혜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주시는 이는 오직 그의
중보사역이 계속됨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모든 새 것은 그의
중보사역에서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로고스요, 그 선지자요, 메시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새해에 이 분을 목자로 알고
따르자.